

종말을 향해 가는 이 시대에 드러나는 악한 일들에 대항하기 위해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전파에 열정을 다해 달려가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7월 17일 (토) 제 1833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ith-Coronavirus Era **슬기로운 대처로 교회성장 활성화** WSJ, 코비드 펜데믹으로 변화된 몇 가지 영역 보도

코비드가 세상을 바꿨다는 것은 누구나 마음속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무서운 속도로 확산해 전 세계를 혼란과 두려움에 빠트렸다. '자가격리(Self Quarantine)', '자택대피명령(Stay home order)'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e)' 등의 생소한 용어들은 이제 일상의 용어가 됐고, 세상은 '비대면, 비접촉' 문화 속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세상은 포스트 코로나바이러스 시대(Post-Coronavirus Era)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맞부딪쳐야 할 세상은 '위드 코로나바이러스 시대(With-Coronavirus Era)'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집단면역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

간이 걸릴 것이며, 그 사이 제2, 제3의 변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넘긴다 해도 일상(normal)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쇼핑 습관의 변화, 원격 학습, 큰 정부와 같은 몇 가지 영역 등에 대해 변화된 것을 설명해주는 특집 보도(7 Ways Covid Has Changed Our World: The pandemic, and our reemerging from it, are reshaping the economy, government and business in lasting ways)를 통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말해준다.

코비드는 또한 교회를 위한 변화를 일으켰고,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요구된다.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James Emery White) 목사는 모든 변경 사항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받아들이건 받아들이고 강력하게 거부할 것이 있다는 것이다(How the Pandemic Has Changed the Church).

1. 출석

변경사항: 이제 교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직접 참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교회에서 온라인 참석자는 계속해서 대면예배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에서 대면 출석률이 코로나 이전보다 절반 이하로 줄고 있다.

응답: 이것은 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 중 특히 온라인 헌금의 지속적인 중요성과 재정 구조에서 우위에 서게 될 것이다. 온라인 출석에 비해 직접 대면예배 출석에 높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온라인에 참석하는 교인들을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비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더 나은 방법은 모든 참여를 수용하는 것이다. 우리(Mecklenburg Community Church in Charlotte, NC)는 교회 정체성과 전략 측면에서 두 캠퍼스 접근 방식(하나는 온라인, 하나는 대면예배)을 완전히 수용했다. 그러나 교회의 입장에 관계없이 교회로 들어오는 정문은 결정적으로 디지털이며, 사람들은 강력한 온라인 존재를 기대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성경적 요구가 없기 때문에 이것과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정당한 경우 우리의 신학을 디지털 세계로 가져와야 하며, 디지털 커뮤니티의 맥락에서 온라인 예배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이다. 우리는 개인의 취향을 둘러싸고 신학적 울타리를 세우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온라인 예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0장 24-25절을 지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서 대면 공동예배의 명령으로 함께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온다. 그러나 저자는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 전략적 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분명한 요청이었다.

2. 일치

변화: 교회 일치의 기반이 관계에서 이데올로기로 바뀌었고, 그 이데올로기의 기반이 교리에

서 정치화된 모든 것으로 바뀌었다. 교회의 교리적 선언은 교회의 "문화적" 선언보다 덜 중요하다. 그 결과 개인과 교회가 인지하는 "문화적 진술" 사이의 불일치는 이제 공동체의 해체뿐만 아니라 예의 없는 행동을 허용하는 근거가 됐다.

응답: 이것은 틀림없이 COVID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악마적인 역동성이며, 동시에 견지되는 통합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비난하고 반대해야 한다. 기독교 일치의 기초는 항상 정통(교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정통(그 생각에 비취될 때 올바른 실천)이었고, 이 둘의 진정성과 완전성에 대한 가장 큰 증거는 관계적 일치였다. 세 가지 모두가 왜곡되거나 대체되는 것은 이단에 불과하다.

성경이 연합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고 생각하는 확실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만장일치를 의미하지 않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모든 사소한 문제에 대한 완전한 동의다. 일치라는 말은 믿음 자체의 본질적인 연합과 사랑 위에 세워진 관계적 연합을 의미한다.

(3면으로 계속)



성별을 신념대로... 'M'도 'F'도 아닌 'X' 허핑턴포스트, 성소수자 여권발급시 남녀대신 '중립' 선택보도

지난 6월 30일 미 국무부는 성소수자를 위한 여권발급절차를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개인은 여권을 발급받을 때 여성인지 남성인지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새로운 개정안 아래 논-바이너리(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성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및 트랜스젠더는 '성별중립'을 선택할 수 있다. 앤서니 블링큰 국무장관은 앞으로 "여권 및 공식 신분증에 'M(남자)'나 'F(여자)' 대신 'X(성별중립)' 표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고 공식 발표했다(U.S. To Expand Passport Gender Markers For Nonbinary, Intersex Americans: For the first time, the State Department will allow people to obtain passports and IDs using a gender neutral "X" marker instead of "M" or "F.").

이번 개정안 발표 이전까지 트랜스젠더 개인이 공식 신분증에 표기된 성별(태어날 때 가진 성별)을 바꾸려면 의사로부터 '전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그 조건도 삭제된다. 앞으로 의사의 소견과 상관없이 개인은 신분증에 표기할 성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블링큰은 "X 성별 마커를 추가하는 과정은 기술적으로 복잡하다며 "광범위한 시스템 업데이트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올해

연말까지는 새로운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 외에도 현재 10여 개국이 여권에 남녀 성별 이외의 표시를 허락하고 있다. 이를 허용하는 국가는 호주, 방글라데시, 캐나다, 덴마크, 인도, 몰타,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등이다. 'X' 성별 표시는 현재 국제여행 문서표준을 권장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해 공식 인정받는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3면 푸른초장 이만호 목사



16면 Oksbca 한인총회장 인터뷰 김경도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press.net / chpress@g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일,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브릿지교회 창립30주년 Festival

“ 브릿지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 교회와 이웃사회를 연결하고, 세대와 다음세대를 연결하는 브릿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

김재호 목사 (브릿지교회)

- 창립 30주년 기념 부흥성회** JULY 23/24
최홍주 목사 (PCIGA 총회장, 에브리데이교회)
7월 23일(금)~7월 24일(토) 오후 7:30 (2일간)
- 찬양 간증집회** JULY 4
지명현 목사 (소리엘 / 하나님아시아, 야곱의 축복 등 다수)
7월 4일 (주일)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1:00
- 찬양 간증집회** JULY 11
이은수 목사 (나는 내 아들이라, 야베스의 기도 등 다수)
7월 11일 (주일)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1:00
- 비전(Vision) 집회** JULY 25
김승년 목사 (베른 루지 비전교회, 1대 담임목사)
7월 25일 (주일)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1:00
*2부 예배시 장모 & 권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 창립 30주년 감사 및 위임예배** JULY 25
2021년 7월 25일 (주일) 오후 4:00

THE BRIDGE CHURCH 브릿지교회 T.800.484.0992 3045 Old Conejo Rd, Newbury Park, CA 91320

발행인 칼럼

마이웨이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최근에 한 동영상에 보게 되었다. 어느 노(老) 목사의 임종 예배 동영상이었다. 사모님과 자녀들이 둘러앉아 말씀을 읽고 찬양도 하며 기도도 드리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다. 목사의 마지막 말씀도 그 영상에 담겨 있었다. 마지막 호흡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이 성숙(成熟)한 것 같은 자녀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시는 목사의 모습에서 목사님이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선명히 보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목회자는 어떤 길을 달리다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 깊은 깨달음도 가졌다.

“My Way”라는 노래는 크게 들어 있었다. 하나는 2천여 년 전 사도바울이 불렀던 “My Way”이고 다른 하나는 수십 년 전 Frank Sinatra가 불렀던 “My Way”이다. 바울을 이렇게 불렀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연하고 웅장하다. 시나트라가 마이웨이는 이렇다. “이제 끝이 다가오는군/ 그리고 마지막 커튼도 내 앞에 있어/ 내 친구여, 확실히 말해주지/ 나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이야기를 말할거야/ 나는 바쁘게 살아왔지/ 모든 고속도로를 다 달리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난 내 방식대로 이것을 해왔다는 거야...” 화려하고 대단하다.

생애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부른 점에서 두 “My Way”는 같았지만 그 방향과 방식은 전혀 달랐다. 바울은 부름 받은 소명자의 길이 “나의 길”이라고 말한다. 자기 생명을 다 쏟아 부으며 그 길을 달리겠다고 노래한다. 그 길은 영원히 가지 있는 길, 죽은 자를 살리는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임을 분명히 알았다. 바울은 그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렸다. 그래서 생애의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멋진 마무리가 아닐 수 없다. 시나트라가 부른 “마이웨이”는 바울의 그것과 전혀 달랐다. 큰소리치며 꽤 멋진 삶을 살아온 것처럼 이것저것 말은 화려하게 하지만 실상은 아무런 목적도 가치도 없는 서글픈 “나의 길”이었다.

엔니오 모리코네(Ennio Morricone)는 2020년에 죽었다. 그러나 그가 만든 영화음악은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이다. 그는 “황야의 무법자”라는 휘파람이 스산하게 울려 퍼지는 영화음악도 만들었고, 그 유명한 “가브리엘의 오보에”가 연주되는 “미션”이라는 영화의 주제기도 만들었다. 어떤 주제이든지 다소 몽환적(夢幻的)인 그의 영화음악을 한가히 번갈아 듣고 감상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멈추어 서서 나의 길이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황야의 무법자”와 같은 길인지 부름 받은 고결한 “미션”의 길인지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그렇다. 내가 부르는 마이웨이가 바울의 마이웨이인지 시나트라의 마이웨이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보니 오늘은 한국의 제헌절이다.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황야의 무법자”가 영화에서만 있었으면 좋겠다. 부름을 좇아 사는 “미션”의 이야기는 영화 밖으로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시나트라의 노래에 더 이상 감명 받지 말고 바울의 결단에 감동하며 그 결단을 내 삶으로 확실히 살아야겠다.

사역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무기고를 열라!

TGC, 데이빗 G. 건더슨 목사의 ‘목회위한 비밀무기 7가지’ 게재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변화할까?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전사(戰史)를 읽어보면 탁월한 리더들과 탱크, 폭격기, 전쟁 물자와 같은 그들의 전략 무기들이 등장한다. 승리한 장군들은 훈장이 수여될 뿐 아니라 후대에 오래도록 기억될 위대한 희생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다. 성경 이야기도 그런 면이 있다. 노아는 방주를 짓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베드로는 오순절 역사의 한복판에 선다. 바울은 지중해를 향해하며 아볼로라는 유대인들을 논박한다. 고대 방주제작자, 거인을 쓰러뜨린 소년, 하늘을 가르스 선지자, 부흥설교자, 순교당한 선교사, 그리스-로마시대 웅변가들이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자리한 사역 박물관을 빛내고 있다. 이들에게는 이들과의 자리가 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쓰셨고,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 하지만 강력한 무기와 전

략 중 어떤 것들은 강력한 동시에 가장 섬세한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무기고에는 육지를 울리는 탱크, 공중을 지배하는 전투기, 그리고 병커버스터 미사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이 드러나지 않는 작은 퍼즐 조각들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천천히 움직이는 물자 보급 경로, 소총 어깨끈을 설계하는 이들, 수색대와 지형학자들, 무선 통신을 가능케 하는 보이지 않는 음파들이 바로 이런 작은 조각들이다.

하나님의 무기 중 많은 것들이 빠르지 않고, 섬세하며, 거의 보이지 않는다. 뺨 안에 들어있는 효모나 끓는점에 도달하는 물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역하려면 큰 믿음, 그리고 영적인 통찰에서 오는 지혜가 필요한데, 사역에 필요한 일곱 가지 비밀무기는 다음과 같다고 데이빗 G. 건더슨 목사는 말한다(7 Effective Weapons for Effective Ministry).

1. 기도-강력한 무기

우리가 지닌 보이지 않는 무기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는 하늘을 열어 땅에 씨를 뿌리게 한다. 엘리야는 단순한 기도로 숯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을 했다(왕상17:1; 18:41-46; 약5:17-18).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도 기도로 이뤄진 것이었다(마14:23;



사 방에서 나누는 대화가 남의 험담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때, 대화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은 공동체의 낡고 해어진 부분을 다시 바느질해 깊은 사람이다. 강의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교수는 진정한 의미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바울이

섬세한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나님이 주신 도구는 잘 인지되지 않을수록 더 능력있어

눅6:12; 9:28). 우리 사역의 열매 역시 골방으로 들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무릎 꿇고 울부짖음으로 하늘의 잔이 채워져 은혜가 넘쳐날 때 풍성해지는 것이다. 신학교를 졸업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주부들의 모임이 있다. 이를 통해 역사의 궤적이 바뀔 수도 있다. 방방한 자녀들로 인해 지쳐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다. 오랜 세월 뒤 그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기도의 끈에 이끌리어 지친 걸음으로 돌아올 때, 이 부모들은 자녀를 부둥켜안고 울 수 있게 된다. 중년의 목사가 여전히 영성하고 부족한 설교 원고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할 때, 성경에서는 주일아침 매마른 듯한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한 강물처럼 바꾸시는 역사를 행하신다. 한나가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삼상1)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는 사무엘이라는 결출한 인물을 주셨다. 자기 사환의 믿음을 위해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그 산에 불발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하셨다(왕하6:17). 느헤미아가 귀환을 위해 기도한 후(느1:4-11)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재건됐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방편이다. 사역을 위한 비밀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다.

2. 본보기-경청하게 하는 힘

기도의 골방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소통해야 우리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을까? 흔히들 생각하는 것은 설교, 찬양, 책, 블로그, 수련회, 컨퍼런스, 팟캐스트, 동영상, 다양한 사역위원회, 회의 등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본보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부싸움 후에 남편과 아내가 매번 아이들 앞에서 화해한다면 아이들은 죄와 은혜에 대해 일주일간의 가정예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대학 기숙

다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딤후4:12)고 권면하는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가 섬길 교인들이 디모데의 언행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행실로 모범을 보이는 이들의 말을 경청한다. 우리가 본보기가 되지 못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본보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처한 곳에서 말을 하지 않고도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3면으로 계속)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 과목 -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짐검사, 지방간, 각종 소위기 질환,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의외의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 안 내 - 지아익(임플란트), 구강외과, 틀니, 보철치료, 미용성형치과, 신장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2021년 제6회 PGM 선교사집중훈련

admin@pgmusa.org | www.pgmusa.org

전문인선교사를 모집합니다!

- 훈련일정**
- 1차 (수료대상): 8월 23일(월)-9월 3일(금) 오후 7시 -10시 (미국 동부시간)
선교의제4물결, PGM 7대 핵심가치 (성령충만증심, 디아스포라증심, Here & Now 증심, 전문인증심, 지역교회증심, 지역교회설립증심, 땅끝증심선교), 선교사례 (난민선교, 다민족교회, 전문인선교, 지역교회선교 실제, City Church, 웨일즈선교, 지역교회 차세대선교, 스페니스사역), 선교사의 경건의 훈련, 팬데믹 시대 온라인선교, 타문화권 전도
 - 2차 (파송대상): 8월 23일(월)-9월 10일(금) 오후 7시 -10시 (미국 동부시간)
1차 훈련 및 선교사의 정체성, 영적전쟁, 선교지 전도전략, 내적치유, 인도네시아선교, 도심선교, 선교사의 행정훈련, 간증/나눔
- 훈련방법** 온라인 훈련 (Zoom, YouTube)
훈련대상 스포츠, 교육, 의료, 미용, 캠퍼스, 영상, 어린이, VBS, 청소년, 금융, 건축사역 등의 전문인선교사
등록비 개인 \$50 / 부부 \$80
등록마감 8월 6일(금)

강사진

 호성기 목사 PGM 국제대표 필라 안디옥교회	 김기석 목사 PGM 부이사장 그린스보로개일장로교회	 김상돈 목사 PGM정책이사/미주본부장 개태말라원인교회	 박윤선 목사 PGM 정책이사 뉴욕 어린영교회	 이상현 목사 PGM 정책이사 말리안장로교회	 안사무엘 목사 PGM 실행총무	 김명민 선교사 PGM 한국본부장
 양중연 목사 Antioch Spanish Church	 고대은 목사 Antioch All Nations Church	 이준선 선교사 Antioch City Church	 이민우 목사 어스틴안디옥교회	 박사무엘 목사 선교교회	 이민재 선교사 PGM 한미연방장	 Jay Kim 선교사 PGM 영아훈련부장 Antioch EM College
 김현영 선교사 PGM 순회강사선교사 (농축업/수위전문)	 이태후 선교사 (도시빈민/금융전문)	 양용태 선교사 PGM 선교사 (그리스, 난민전문)	 조영태 선교사 PGM 유림본부장 (웨일즈선교)	 함훈환 선교사 PGM 선교사 (인도네시아, 교회개혁)	 김데이빗 선교사 PGM 선교사 (UK, 큐티사역전문)	 김수잔 선교사 PGM 선교사 (UK, 큐티사역전문)
 박상수 선교사 PGM 부이사장 (교육/강사전문)	 정준영 선교사 PGM 선교사 (지역교회/강사전문)	 정석관 선교사 PGM 선교사 (웨일즈, 거리전도전문)	 John Park 선교사 PGM 선교사 (어린이/VBS전문)	 송기정 선교사 PGM 선교사 필라안디옥교회 차세대위원장	 박지은 전도사 필라안디옥교회 초등부	



WITH-CORONAVIRUS ERA...

(1면에서 계속)

3. 제자도

변화: WSI가 보고한 바와 같이 원격 학습은 6,700억 달러 규모의 대학-산업 단지를 위협하고 있다.

응답: 온라인 출석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내가 저항할 필요가 있는 변화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포용하고 최대한의 잠재력을 취해야 한다고 느끼는 변화다.

한다는 사실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4. 봉사활동

변화: 효과적인 아웃리치의 본질은 본질적으로 항상 관계적이고 구체화되는 것이지만 관계적 초대역학은 "나와 함께 가자"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로 변경됐다.

응답: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저항하지 말고 수용해야 한다. 가장 강력한 초대는 여전히 관계의 역동성을 통해 진행된다.

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5. 기대

변화: 큰 정부의 시대와 함께 큰 교회에 대한 기대가 온다. 규모 면에서 아니라 서비스를 기대한다.

응답: 신자의 개인적인 필요와 욕구가 사역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을 침범한 영적 나르시즘을 폭로하고 저항하고 비판해야 한다.

사역에서 승리하려면...

(2면에서 계속)

3. 일관성-완성의 원료

당신에게 일관성이 있을수록 사람들의 이목을 덜 끌게 된다. 잘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 마음대로 만든 은유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밭에 왕국 메시지의 씨를 뿌리셨다.

농부의 일처럼 사역에서도 반복이 매우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모이고 설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 다시 말해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이다.

추수하는 그 순간까지는 일관성은 지루하게 느껴지게 마련이다.

4. 시스템-효율성의 증대

건강한 활동을 반복하는 것만 일관성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건물을 구성하는 돌보처럼 시스템은 외부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시스템은 완벽할수록 밖에서 식별이 어렵다. 아주 잘 들어맞기 때문이다.

작은 규모의 목회를 하는 경

우 시스템, 시간계획, 각종 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너무도 쉽게 무시된다.

5. 준비-기회를 위한

어떤 일에서든 준비가 잘 안 된 사람은 금방 표가 난다. 하지만 준비가 잘 된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경험과 안목이 필요하다.

물론 준비를 과하게 한 나머지 어떤 행사를 관에 박은 듯 진행되고, 건강한 자발성을 불러버리거나 성령의 바람조차도 조절하려 드는 일이 생길 수는 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목에 거는 이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이 그 자리에 아주 쉽게 올라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속물로 주려 함이 아니라 "먼저 되고자 하는 자는 꼴짜가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성별을 신념대로...

(1면에서 계속)

미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한 배경으로 '국립트랜스젠더평등센터'의 2015년 미국 트랜스젠더 인구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68%가 성별과 성별이 모두 반영된 신분증이나 기록이 없었다.

정확한 신분증이 없는 성소수자 3분의 1은 서비스 거부, 차별 등을 자주 당한다고 답했다.

적 운동선경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쉬지 않는 육체적 훈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룬 것이다.

6. 어조-경기의 심판

어떤 관계에서든 좋은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배경에서 온 구성원들이 이룬 공동체, 위계적인 기관, 여러 부서로 이루어진 조직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어떤 특정상황에 꼭 맞는 어조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어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

하지만 '잘못된' 어조로 말하면 당신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당신의 메시지의 효과가 사라진다.

어조는 운동경기의 심판과도 같다. 심판이 일을 제대로 하면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6면으로 계속)

시론

코로나와 청소년 자살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2020년 3월부터 우리는 코로나와 투쟁하면서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자에 들어와 콜로라도주에 소재한 소아과병원마다 응급환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것이 아닌 미전역을 휩쓸고 있는 청소년 자살사도 때문입니다.

주정부 담당자들과 소아정신과 의사를 모두 갑작스런 자살증가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서 운동하거나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한 채 고립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며 제대로 된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어 학생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현격하게 줄어들어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교회든 학교든 직장이든 함께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팬데믹 시기를 지내면서 몸소 배우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코로나를 벗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혹은 대면으로 드리는 주일예배이었던 예배 후 아무런 교제도 갖지 못하고 손살같이 교회당을 벗어나야 했던 숨가쁜 코로나 훈련도 다 마쳐 갑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모여 사랑도 갈등도 웃음도 울음도 기도도 찬양도 때론 질량도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살려주는 힘이 됨을 코로나를 지나가며 다시 배웁니다.

hankschoi@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휴스턴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공고. 텍사스주 휴스턴시에 위치한 저희 휴스턴 한인교회(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에서는 제 9대 담임 목사님을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1. 자격요건: 정규대학,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목사.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탈트랜스젠더” 남녀들의 생생한 증언들 (하)

탈트랜스젠더(Ex-Transgender) 남녀들의 생생한 증언, “위험할 정도로 쉽게 만들어 놓은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구입절차... 그러나 그렇게 성전환을 했어도 내 가슴엔 여전히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주로 매우 좌파성향의 뉴스만 다루던 CBS의 60min.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성별을 바꾼 것에 대해 후회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다루어 많은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에 이어 마지막 탈성전환자의 증언과 심리학적 전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증언

탈성전환자가 된 Garret에 의하면 자신은 ‘성전환수술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보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상태가 악화되었다. 나는 이전에 한 번도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지만 가슴 확대수술을 받고는 많이 흔들렸다. 그 후 일주일 후 나는 정말 내 자신을 죽이고 싶었다. 그래서 자살 계획까지 세웠는데... 그때 내 가족을 떠올리며 비로소 멈출 수 있었다. 그 당시 들었던 느낌은... 이제 어떻게 다시 다른 남자처럼 정상인으로 느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성전환의 전문의 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Dr. Laura Edwards-Leeper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성전환 하는 것을 도왔던 의사인데 다음처럼 얘기했습니다. “이 분야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든다. 나는 지금 여러 곳에서 비윤리적이고도 매우 무책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잘못 입을 열었다가 혹시나 자신들이 트랜스젠더 젊은이들을 지지하지 않거나 트랜스 커뮤니티를 해치는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해서... 하지만 일부 성전환을 한 성전환관련 의료종사자들조차도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위험하다.”
△American Principles Project의 대표인 Terry Schilling은 언론매체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젠더 이데올로기를 의학으로 가장하는 것에 반대해왔던 사람들은 이 해로운 시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수렁으로 밀어넣은 후 마침내는 ‘전환(성전환)’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이미 그 현상들은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불행히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외치는 자들의 소리’(동성애/성전환이 미국의 가정과 사회, 차세대에 끼칠 수 있는 영향들)를 무시해온 끝에 우리가 우려한 예측들이 뼈아픈 현실이 된 것이다. 그래서 주류 언론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탈성전환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고 느낄 정도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이슈들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알칸사주와 테네시주 같은 곳들은 아이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성전환의 길을 걷지 않도록 법으로 조치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탈성전환자들이 겪는 역경들이 더 많이 드러나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 더 많은 주(State)들이 알칸사주와 테네시주를 따랐으면 한다.”

△Abigail Shrier는 “Irreversible Damage: The Transgender Craze Seducing Our Daughters(불가역적인 피해: 우리의 딸들을 유

혹하는 성전환의 광풍)”이라는 책의 저자로 어린 연령자들의 성전환시도가 얼마나 해롭고 악한지에 대해 경종을 울린 최초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아비게일은 크리스천이 아니지만 성전환자체가 아이들에게 의학적, 심리학적으로 얼마나 해로운지 그녀의 전문지식을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여성적 특성과 성향을 이전에 보았던 십대 여자들 사이에서 급증한 성전환환자 사고(transgenderism)에 대한 고찰”에 대해 쓴 책이며 무분별한 성전환 수술이나 사춘기 차단제(puberty blocker) 호르몬의 해악성에 대해 고발한 탁월한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탈성전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다르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인 캘리포니아 대학의 에리카 앤더슨 박사가 그중 한 명입니다. 그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꾼 트랜스젠더며 현재 Gender & Transgender Health 및 심리학에 전문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풀러신학교에서 심리학까지 전공한 사람입니다(School of Psychology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아닌, 하나님 없이 blackhole과 같은 심리학의 인본주의와 트랜스젠더를 선택했습니다.

앤더슨은 탈성전환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은 단지 그들의 경험에 의한 것이며, 그들의 경험이 오히려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를 위해 더 많은 정신적 건강관리의 필요

성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사회에서 외면당한 고통이 내게도 느껴진다”고.

앤더슨 박사의 말에 동의하는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앤더슨이 언급한 “성전환자들의 고통”은 그런 고통을 주도하는 매우 혼돈된 정체성을 부추김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과 진리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된 진리를 알려주고 그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의 심적 건강, 육적건강을 진정 돕고 싶다면 그들을 계속 죄악과 고통, 그리고 결국 그 대가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치러야 할 그 혼돈의 깊은 감옥, 빠져나오기 힘든 거짓의 구렁텅이에서 빼내고 싶다면 우리 모두가 깨어나야 합니다. 각 주 각 도시마다 이렇게 혼돈과 거짓에 묶여서 악의 영에 붙잡힌 불쌍한 영혼들을 더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악한 법안과 정책들이 지금처럼(현 바이든 행정부) 계속 펼쳐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자녀, 도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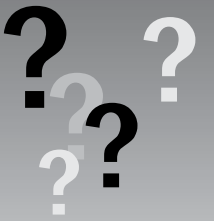
결론

주류 미디어가 이제서야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성전환수술의 위험성과 너무나도 안이하게 성전환에게 접근하게 하는 시대적 조류의 위험성에 대해 보도한 것은 무척이나 늦은 감이 있지만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오늘도 혼자서 정체성의 혼돈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하루빨리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며, 더 많은 탈성전환자들이 성전환의 해악성을 알리는 계기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미국에 와서 식당에 가면 팁을 주는 것이 공돈이 나가는 것 같아 팁 문화에 익숙하지 못해 팁은 10% 정도 밖에 안내는데, 때로는 기도하고 밥 먹는 기독교인으로 혹시 욕먹지 않을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요?
-에나하임의 최

A: 좋은 질문입니다. 원래 팁문화는 유럽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Gratuity라고 불리는 팁은 16세기 후반 영국의 커피하우스에서 TIP(To Insure Promptitude)이라고 쓰여졌다고 합니다. 빠른 서비스를 위해 돈을 줬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정착 유럽에서는 현재 팁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대신 계산서에 서비스 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되었던 팁 문화는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북전쟁 이전에는 미국주인은 노예를 공짜로 부렸지만 노예가 사라지고 하인계급이 생겨나면서 팁 관습이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식당주인은 종업원 임금을 낮게 책정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팁으로 알아서 충당하라는 것입니다.

식당 팁은 15% 이상...기도는 옆 좌석 방해 않도록 작게

웨이터 렌트(waiter Rent)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뉴욕의 한 식당에서 9년 동안 웨이터로 일하면서 얻은 경험을 책으로 엮은 것인데 저자는 웨이터 경험에서 가장 싫은 사람은 팁에 인색한 사람이라며 특히 영국인과 프랑스에서 온 손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팁에 인색한 손님이 오면 화장실 가까운 데로 안내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한국인은 미국의 팁 문화에 익숙하지 못해 식사 후에 팁을 놓는 것은 공돈이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여 팁에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팁은 종업원의 수고와 봉사에 대한 고마움(Gratitude)의 표시입니다.

최근 어느 지역에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산서를 받아본 어느 한국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계산서에 식사가격 이외에 팁 18%가 포함된 가격이 되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웨이터를 불러 왜 팁이 계산서에 포함되었느냐고 묻자 레스토랑 방장상 6명 이상의 단체 손님에 한해 식사값의 18%가 팁으로 포함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서비스가 좋지 않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의무적인 팁(Mandatory Tip)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단체 손님에 대한 18%의 의무적 팁은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팁은 의무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과거에 식당에 가면 팁에 대해 인색한 마음이 있었었습니다. 하나님께 내는 십일조도 1/10을 내는데 왜 식사 후에 15%를 내야 하는가?에 대해 불만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10%정도를 내었는데 그러나 종업원의 임금이 적어 팁에 많이 의존한다는 말을 듣고는 그 다음부터는 15%를 계산해서 팁을 줍니다. 한번은 한국식당의 어느 종업원의 말이 목사님들이 팁에 가장 인색하다는 말을 듣고는 그 후부터는 식당에서 팁도 후하게 계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식당에서 함께 모여 식사할 때 조용히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웃좌석에 손님이 있던 없던 큰소리로 오랜 동안 기도하는 이가 있습니다. 남에게 방해되지 않기 위해 소리를 낮추어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음식이 식든 말든 큰 소리로 오래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팁은 아주 인색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문화를 따라야 하듯이 미국에 오면 미국 문화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식당에 가면 조심할 것이 2가지가 있는데 1)식당에서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나 목사 장로 등 교인이야기를 하지 말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목사 욕, 교회 욕, 장로 욕을 들으면 전도문이 막힙니다. 2)나를 때 팁에도 신경을 써서 감사의 표시로 15% 이상을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이기에 마태복음 5:16 말씀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미국 동부의 대표적인 한인교회 목회자가 말하는
코로나19 시대, 예배의 정수(精髓)!

국민일보

그 많던 예배사는 어디로 갔을까

저자 김성국 목사 (미국 뉴욕 퀸즈장로교회 담임)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진 건 아니다

우리 집 주소는 Woodland Drive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전 울창한 숲속에 길이 닳고 주택들이 지어져 여전히 나무도 크고 숲도 깊은 동네다. 그래서 워싱턴DC가 차로 20분 밖에 걸리지 않는 도시지만 동네를 산책하기도 좋고 여름마다 넓은 뒷마당에 와서 여유롭게 풀을 뜯는 사슴무리와 어미 곁을 경중경중 뛰어다니는 아기사슴들을 보며 자연이 주는 기쁨과 생명에 감사하며 지낸다. 예민한 사슴들을 방해하지 않으려 최대한 살금살금

걷는 아들의 우스꽝스런 걸음걸이에 웃음 지며 사슴가족을 보는 것은 우리 가족의 가장 즐거운 여름행사가 되었다. 그런데 미주지역 전체에 부는 주택 과열현상과 집값 상승은 이곳 노던 버지니아의 집값도 비정상적으로 급속하게 오르게 하고, 더불어 수요와 공급 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 부동산주택업자들은 비어있던 땅에 집들을 짓기 시작했다. 사택 옆 숲이 연결된 넓은 빈 땅도 어느 날 작은 깃발들이 꽂히고 공사 차량들이 오더니 땅을 다지고 새 주택건

설공사가 시작되었다. 주택건축을 위해 다양한 차량들과 사람들이 들고나며 분주해지자 자연스럽게 사슴과 여자들은 자기들의 막힌 길을 두고 숲 앞 경계에서 헤매는 모습이 보인다. 차량소음이 늘자 로드킬 당하는 동물의 사체도 예전보다 많이 보여, 공사를 지켜보는 마음이 새 이웃을 만나는 기대보다 안타까움으로 다가온다. 당연히 동물들은 그 수도 점점 줄어드는 듯 하더니 어느새 모두 자취를 감추고 여름이 시작되듯 뒷마당에 매년 보이던 사슴가족도 집 사이 새길을 통해 숲으로 뛰어가던 여우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내가 먼저 인식하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사슴들이 오지 않는다며 서운해 한다. 정원 예쁜 화초들의 새순을 따먹기는 했어도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 반가운 손님이라 생각했는데... 다들 어디로 가버린 건지... 그렇게 새로운 이웃들이 이사와 인사를 나누고, 여름햇살은 점점 뜨거워져 간다.

팬데믹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며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가 뒷밭을 가꾸는 것이다. 이미 뒷밭자리가 되어있는 땅이 있었지만 임무를 내지 못했는데 아이들과 마켓에서 고추와 깻잎 상추모종을 사다가 옮겨 심고 아침저녁으로 물을 주며, 심은 야채가 잘 자라도록 잡초도 열심히 뽑아주는 정성을 들였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어르신들 말씀처럼 시간을 쏟은 만큼 뒷밭 채소들은 제법 자라서 밥상에 올라 여름식탁을 풍성하게 채워주었다. 특히 열매를 맺어 영글기를 기다려야 하는 고추에 비해 깻잎과 상추는 자라는 속도가 빨라 이웃과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아이들이 먼저 밭에 물을 준다고 뒷마당으로 가더니, '뛰야! 왜 이래!' 하며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왜? 무슨 일이야?' 대답하며 쫓아가보니 뒷밭 상추잎이 푹푹 다 따져 끝부분만 남아있다. 향이 강한 깻잎과 고추

는 군데군데 끝만 살짝 건드린 듯 보이는데, 상추는 단 한 잎도 없이 모두 먹어치웠다. 뜯어먹고 남은 흔적을 보니 예전 사슴들이 먹은 화초 잎 같다. 앞마당으로 달려가 확인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무성했던 화초 잎도 다 사라졌다. 생각지 못한 뒷밭 공격에 실망한 아이들에게 '애들아, 걱정하지마... 사슴이 먹은 거야. 사슴들이 돌아왔나봐!' 웃으며 애기한다. 아이들도 이내 수긍하며 '정말이요? 사슴이 먹으면 괜찮아요' 하고 좋아한다. 이날 이후 상추는 사슴들에게 도내이션하기로 결정했다. 다시 찾아온 사슴들은 이제 매일 다녀가는지 상추 새순이 조금만 올라와도 없어진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남편이 동트기 전 어스름에 다녀가는 사슴무리와 아기사슴도 보았다고 얘기해 주며 다시 돌아온 것 같다고 한다. '다행이다!' 안 보여서 걱정하고 아쉬워하며 이젠 못 볼 거라 생각했는데... 변이바이러스로 끝이 안 보이

는 코로나 세상이 육체적질병과 함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존중, 우정, 용서, 사랑, 공의도 점점 사라지게 한다는 걱정스런 뉴스가 많다. 그러나 이런 걱정하지 않기로 했다. 모든 공사가 끝나고 맛있는 풀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고 기다리니 사슴가족이 조용히 돌아와 다시 뛰어논다. 이번 칼럼을 다듬고 있는데 아기여우 두 마리가 뒷마당에 있다고 해서 가보니 두 마리가 아니고 세 마리가 놀고 있다. 귀여운 아기여우들이 금세 가버릴까 아들의 걸음이 또 웃음 짓게 한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진 건 아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후5:8).

songj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영국감리교 동성결혼 인정

최근 영국감리교회(감독회장 소니아 히스 목사)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영국과 서구 교회들이 속속 동성결혼의 문을 열고 있다. 사회변화에 맞춘, 교회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성경의 정신을 거스르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영국감리교회는 지난달 30일 버밍엄 총회에서 결혼의 정의를 개정하는 투표에서 찬성 254, 반대 46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동성결혼을 받아들여기로 했다. 총회에서는 '두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일생 결합'을 결혼으로 정의하자는 의견이 발의됐다. 영국감리교회는 4000개 교회, 16만4000여명의 성도가 소속돼 있으며 영국에서는 네 번째로 큰 교단이다.

감리교 부총회장을 지낸 캐롤린 로렌스 목사는 "소수의 목회자가 감리교단 탈퇴나 회원사임을 계획하고 있다"며 "오늘은 우리가 믿는 교리를 떠난 날이자 그 기준선을 그은 날"이라고 탄식했다.

영국 정부는 2013년 7월 동성결혼을 합법화해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국감리교회도 이 같은 사회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국감리교는 수년 전부터 '동성애자 결혼을 축복하는 기도와 예배 형식에 관한 지침서'를 내놓기도 했다.

가디언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케이커고, 유니테리언총회, 자유기독교교회, 스코틀랜드성공회, 연합개혁교회 등이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성공회는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교단 내부에서 관용을 촉구하는 요청이 늘고 있다. 지난 2일 리버풀 교구의 폴 베이스 주교는 "영국성공회가 '젠더중립결혼'안을 채택해 동성커플을 축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풍토는 서구교회의 현실이 되고 있다. 미국장로교(PCUSA)는 2015년 동성결혼을 수용했다. 당시 PCUSA는 결혼의 정의를 '두 사람 사이의 계약'으로 개정했다. 미국 성공회는 2018년 동성커플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교단법을 가결했다. 미국북음주의루터교회와 미국그리스도연합교회도 동성결혼을 인정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총 38개주와 워싱턴DC가 동성결혼을 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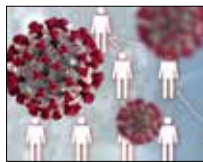
화하고 있다.

미국연합감리교회(UMC)는 지난해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성직허용 등의 의견 차이로 교단의 전통을 지키려는 보수교단과 성소수자 정책을 수용하는 진보교단으로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단분리는 다음 달 미네소타주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결정된다.

노르웨이복음주의루터교회는 2016년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했다. 프랑스개신교회는 2015년 동성커플에 대한 주례를 허용했다. 스웨덴국교회는 2009년 국교회 소속 교구의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했다. 캐나다장로교는 지난달 6일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안수 등을 허용했다. 호주연합교회(UCA)는 2019년 동성결혼을 허용했다. UCA는 결혼을 '사람의 결합'으로 개정했다.

네팔교회 목회자 코로나 수백명 사망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네팔 교회 목회자들이 대거 희생되면서 교회의 리더십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크리스체너티투데이(CT)는 30일 '카트만두 벨리'에서만 하루 100여구의 시신이 병원이나 군 병원을 떠나고 있다"며 "네팔 교회는 코로나 2차 유행으로 130명 이상의 목회자를 잃었다"고 보도했다. 네팔은 1일 현재 63만600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9000명 넘게 사망했다. 하루 평균 17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사망자 3분의 2가 지난 4월 발생했다.



네팔 자나자가관당(黨) 대표이자 신학자, 목회자인 BP 카날은 CT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5월에는 거의 매일 목회자들이 사망했다. 이런 경우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말했다.

네팔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 2900만명 중 14%에 불과하다. 기독교인 중 10%가 교회 목사들이다. 카날 대표에 따르면 월 2월부터 지금까지 500명 이상의 목회자와 그 가족들이 코로나에 감염돼 숨졌다. 상당수 목회자는 자신들의 자녀와 함께 교회 사역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뮤얼(56)씨는 부친인 로버트 카탁 목사가 코로나로 사망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도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부친은 적절한 절차를 밟아 장례식을 치렀지만 새뮤얼씨는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네팔 군대에 의해 급하게 처리됐다. 사망자 중엔 종교자유를 위해

활동하던 기독교인 변호사 가네시 쉬레스타를 비롯해 티모시 라이, 암바 타파, 만 바하두르 보우딜, 아마 바우자 등 네팔의 대표적인 목회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교회협회(NCFN) 하누 타망 의장은 "많은 교회가 리더십 진공 상태에 직면했다"며 "대형교회들은 이미 차기 목회자들을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준비하고 있지는 못하다. 담임목사를 잃은 교회들은 인근 교회들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기독교인회(NCS) 달리 램 과우델 사무총장은 "네팔 교회는 거의 1년 또는 1년 반을 문을 닫아야 했다. 우리는 정부의 방역수칙에 협력했고 교회는 모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성도가 직장을 잃었고 수입이 없다. 현금할 처지가 못 된다"며 어려워진 교회의 재정 상태도 언급했다.

지난해 첫 번째 팬데믹이 왔을 때 네팔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이어갔다. 하지만 올해 들어 두 번째 팬데믹이 퍼지자 도시 교회들은 대다수 문을 닫았다. 시골 지역의 경우 대면 자체가 금지됐다. 그러나 도시 교회들은 열악한 인터넷과 전력 시스템 아래에서 온라인 모임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지역 교회 리더십 공백이 커지면서 NCFN이나 NCS 등 연합기관 등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교회와 주민을 위한 음식 제공, 의료 지원, 홍보 캠페인, 기도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미복음주의연약교회, '발견주의' 거부 결의

미국복음주의연약교회(the Evangelical Covenant Church·ECC)가 유럽인에 의한 신대륙 발견과 원주민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발견주의'(Doctrine of Discovery)를 거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크리스체너티투데이가 보도했다. 그동안 발견주의를 비판하고 원주민을 포용하자고 결의한 교단에는 미국연합감리교회, 성공회, 연합그리스도교회, 미국장로교회(PCUSA), 미국북음주의루터교회 등이 있었다. 발견주의란 15세기 유럽 각국이 신대륙 발견에 나서면서 현지 인디오의 계몽과 문명화를 명목으로 선포한 정신적 신학적 법적 척적이었다. 이후 미국에서는 1823년 대법원의 존슨 대 매킨토시 판결에서 원주민들의 땅에 대해 미국 정부가 소유권이 있다고 결정하면서 원주민 지배를 합법화했다.



ECC는 1885년 스웨덴 이민자들이 세운 다인종 개신교단으로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

의 은혜를 추구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물로 상처 입은 세상을 치유하며 다양성 안에서의 연합을 도모한다.

ECC는 최근 연례 회의를 열고 84%의 압도적 표차로 미국과 캐나다의 원주민 땅을 빼앗고 식민 지배종과 교회가 공모해 원주민을 지배한 결과, 그 상처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투표 직후 교단의 원주민 목회자협회 대표인 TJ 스미스 목사는 "125년이 지난 지금, 치유의 역사가 ECC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켄터키주 '노아의 방주공원', 바벨탑도 재현

크리스체너티투데이(CT)는 켄터키주에 있는 '노아의 방주공원'이 3년간 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건설을 맡은 창세기의 응답(AG·Answers in Genesis, 회장 켄 햄) 측은 확장을 위한 기금 마련을 시작했다. 2016년 개장된 공원은 당시 1억 달러를 들여 높이 16m, 길이 155m 규모의 방주를 재현했다(사진).



확장된 공원에는 새로운 명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우선 바벨탑 공원을 마련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재현한다. 아직 그 모양이나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켄 햄 회장은 "매혹적이며 눈을 땔 수 없는 매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경에서 바벨탑은 사람들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창11:4)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도록 건축하려 했던 구조물이다. 그러나 건축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온 세상에 흩어 버렸다. 성경은 그 이전까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창11:1)고 기록한다. 재현될 바벨탑은 미완성 구조를 가질 것이라고 AG측은 밝혔다.

고고학계에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탑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지구라트라는 해석이 많다. 지구라트는 일종의 신전(神殿)이다.

창조 박물관도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엔 유전학 연구와 전 세계 모든 종족 그룹의 기원을 확인할 수 있다. AG측은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0년 전 예수 당시 예루살렘의 모형도 조성된다. 고대 예루살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당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은 상부 도시와 하부 도시, 에세네파 구역, 제2구역으로 나뉜다. 제2구역 동쪽은 예루살렘 성전이 자리한다.

사역에서 승리하려면...

(3면에서 계속)
운동경기가 부드럽게 진행되고, 질서를 유지하며, 선수, 감독, 팬들 모두 즐기기 위해서는 심판이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심판으로서의 일을 잘 해내야 한다. 어조는 현대 처세술에서만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다. 영적, 국가적, 행정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리더로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현자들은 왕위를 이어

갈 아들들에게 신뢰를 구축하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말, 설득력 있는 언어,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어조에 대해 교훈한다.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를 자제하며 그 주어진 순간의 필요가 무엇인지 감지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효율적인 사역에는 성경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성경적인 의사소통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뿐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하는지도 포함된다.

7. 섬-사역의 비밀무기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쉬셨다는 것(막4:37-38; 요4:6).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하여금 사역의 분주함으로부터 떠나 안식하도록 하셨다는 것(막6:31)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쉬셨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을 내쫓고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 왜 쉬시겠는가? 게다가 아무리 쉬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해도 어찌 그것이 목회사역의 일부가 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 무한한 힘을 지닌 것은 없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다함이 없는 힘이 있다. 하지만 성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자신의 그러한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피곤하셨고 쉬셨다. 예수님은 바쁜 사역에서 정체를 찾지 않으셨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고 그 일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메시야로서의 일이 요구됐다. 하지만 그는 일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

기 위한 일에만 자신을 드렸다. 이로 인해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의 육신이 쉬어야 할 때 자유롭게 쉬셨다. 섬은 사역의 비밀무기다. 하지만 섬은 너무 자주 무시되고 어리석음, 뿌리 깊은 불안감, 야심 가득한 교만 등으로 인해 심지어 안 좋은 것으로 치부된다. 잊지 말라.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뿐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상당한 시간을 안식에 쓰셨다. 결론으로, 사역의 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많은 경우

밖으로 드러나거나 사람들이 잘 기억하는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순한 도구들은 눈에 잘 띄지는 않을지라도 능력이 있다. 사실, 우리에게 잘 인지되지 않는 것일수록 더 강력한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다면 위에서 언급한 분명하고도 주목할 만한 사역의 방도들을 그저 사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세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자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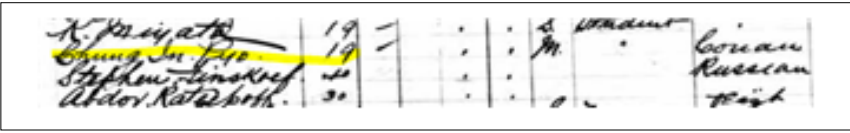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25. 정인표(1888-?)



1907년 1월 9일 캐나다 도착 승객 명단 (위에서 두 번째가 정인표)

정인표는 1888년경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19살 때 그는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일본 요코하마에서 캐나다 밴쿠버로 가는 시나노 마루 선박에 의지해 태평양을 건너 1907년 1월 9일에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내렸다. 그런데 캐나다 서부 해안 밴쿠버에 도착하여 경찰관의 주선으로 잡화점에 취업하면서 초등학교에서 공부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는 임치정과 이병익과 함께 '기회 만세'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였고, 참석 회원의 박수갈채를 받았는데 이전에 공립협회에 가입한 것 같다. 다음 달 15일 토요일에도 그가 본 회관에서 전성덕과 함께 '나라의 강함이 군사로만 되지 않고 학사로만 돼 있다'는 가부 주제로 연설했다. 이러한 활동이 있었던 후인 그해 8

-대저 국가라 칭함은 인민과 토지를 통칭함이라. 비록 토지는 있을지라도 산림전택에 기름짐이 없으면 국가의 부강을 이루지 못할 것이요 또 인민은 있을지라도 사농공상의 직업이 없으면 그 토지를 보존치 못할지라. 그런즉 사업업이라 하는 것이 국가에 관계됨이 얼마나 크며 얼마나 중요하뇨. 슬프다! 우리 본국을 바라보니 산림전택에 기름짐은 세계 각국 중에 제일 될만하다 하겠으나 사농공상 사업 중에는 한 가지도 완전함이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으니 어찌 나라를 보존하겠나 바라리오. 급일에 우리나라가 그같이 절박한 세운을 당한 까닭은 우리 인민이 기회를 좇아 분발 진취함이 부족한 연고라.

우리 청년들은 내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시국에 절박한 것을 원통이 여기며 분개한 마음으로 존음을 시경하여 공부에 열심하고 주의하는 것이 참 한국 청년의 급히 힘쓸 것이라. 이 때를 당하여 장성한 자는 긴급한 실사 사무에 종사할 것이로되 연치가 아직 어린 자는 불가불 순식간이라도 허비치 말고 공부를 열심히 연구하여서 사농공상 중에 자격대로 성취하면 그 가운데 병정도 있을 것이요, 학사도 있을 것이요, 애국지사도 있을 것이요, 대장도 있을 것이요, 대신도 있을 것이요, 각색 모양 사람이 다 있어 완전한 국민을 이룰 터이니 그때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누기 빼앗으며 누기 침범하리오. 슬프다! 우리나라 독립을 찾자 자가 누구뇨. 우리 청년이 아니뇨. 우리나라를 부강케 할 자가 누구뇨? 우리 청년이 아니뇨. 우리나라를 위하여 싸움할 자가 누구뇨? 우리 청년이 아니뇨.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자가 누구뇨? 또한, 우리 청년이 아닌가. 우리가 이같이 중대한 책임을 맡았고, 또 이같이 귀한 청년의 기회를 당하였으니 앞으로 나아가는 기운과 시국을 원통이 여기는 열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정성으로 공부를 더욱 부지런히 하여 우리의 목적을 속성하기를 바라고 두어마디 기록하노이다.

그달 13일 삭도지방회는 정인표를 학무에 지명했다. 그의 막역한 친구 김유택은 서기였다. 삭도 한인감리교회가 창립되기는 1907년 10월 13일 주일이였다. 정인표는 김유택과 함께 이날 삭도한인감리교회 예배인도자로 부임했다. 1907년 10월 18일 자의 공립신보는 본 교회 창립의 정황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새크라멘토에 한인 회당이 설치된 것은 전 호에 기재하였거니와 금월 13일 오후 3시에 처음으로 미션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한인 참석한 이가 21인이요, 미국 손님이 18인이며, 감리사 이 덕 박사사 요한복음 15장 4절 뜻으로 영어 강도하고 양주삼씨가 한어로 번역함에 전 회가 대단 감동하였으며, 감리교회 부인전도회 회장되는 부인도 기쁜 것을 표하여 연설하였다하며, 불구에 한인 전도사도 정하며 야학도 실시한다는데 아직은 정인표, 김유택씨가 인도한다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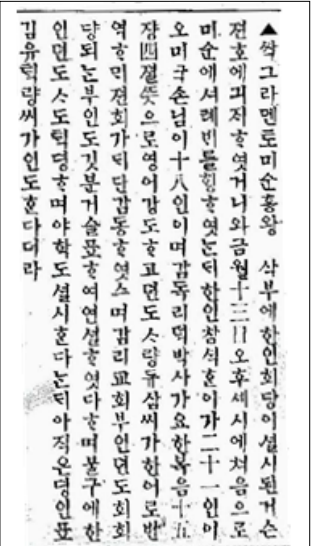
미국 남감리교회 태평양지역 동양인 선교 지방 감리사 리드 박사와 상향 한인감리교회에 파송된 양주삼 전도사의 지도하에서 정인표는 김유택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며 목회하였다. 정인표가 삭도 지방회 학무가 되던 날에 더불어 선출된 회장 김경환, 부회장 신순만, 서기 김유택, 회계 윤경학, 경찰 임예종, 사법부 김종환과 우경식, 응접부 김윤태와 손동선, 사무원 김유택 그리고 간사 우경식은 삭도 한인감리교회 교인이었을 것이다.

같은 날 공립신보에 보도한 '삭도 야학'을 인용하여 정인표가 영어와 작문을 진실히 교수한다더라"고 보도하였다. 교회 사역에는 야학뿐만 아니라 토론회도 있었다. 같은 날에 양주삼 전도사가 다시 삭도 한인감리교회를 방문했으니 그의 인도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이날 양주삼의 방문에 황사용

식을 인도한 양주삼 전도사가 공립신보에 보고했다. 이날 학생 신분이었던 정인표는 50센트를 조의금으로 드렸고, 이러한 관계로 삭도는 목회의 연장선에 있었다.

론돈에서 시카고까지

정인표는 1908년 9월에 박리선과 함께 캔터키주의 론돈에 있던 수베네트 교육대학에 입학했다. 그달 23일 자의 공립신보는 "어떤 서인 친구가 가신처에 소개하여 생소한 탄식이 없게 하였으며, 양 씨의 결심은 학업을 성취하고야 환국하고 저 한 다 더"고 그들의 지를 보도했다. 본 대학은 미국 남감리교회 소속된 2년제 대학이었다. 그런데 1910년 7월에 정인



신한민보(1907년 10월 18일)

표가 결핵에 걸렸는데, 그달 27일 자의 신한민보는 다음과 같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유학하는 정인표씨는 연래에 공부를 독실히 하더니 불행히 폐병에 걸려 현금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본래 학생의 신세라 수중에 있는 돈은 없고 불행한 병은 쫓지 않고 고치기 난하여 그 곤란한 정형은 니루 형언할 수 없다하니 듯기에 긍측하더라." 그런데 다음 달 8월 10일 자의 신한민보에 따르면 "...근일 통신을 거한 즉 의원의 진찰을 받은즉슨 폐염은 아닌고로... 병이 쾌복할 기미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포들이 구제금을 보내어 그의 약비를 써가노라고 감사한 뜻이 많이" 말했다.

정인표는 캔터키 론돈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시카고 어느 대학원에 진학하여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행적을 신한민보를 통해 두 번 알렸다. 시카고로 이주한 이듬해인 1911년 12월 2일에 대한인국민회 시카고 지방회 학무로 선정됐고, 1918년 12월 4일에 미국 부인과 결혼하여 딸 하나를 두고 시카고에서 거주했다. 당시 외국인과 결혼한 한인으로는 김성수, 김 경, 박대인, 김기술, 박봉령, 김창호, 전태호 그리고 황용성이 있었다. 그 후 그는 한인사회를 떠나 살았던 모양이다.

damien.sohn@gmail.com

상향 한인감리교회

정인표는 상향으로 이주하였다. 상향에 한인이 있기는 1903년부터다. 그해 9월 23일에 안창호, 이대위 등 10여명의 정치 망명인과 유학생 그리고 소수의 한국인 상인들이 친목회를 조직하고 교인 숙소를 순회하면서 기도회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렸다. 2년 후인 1905년 7월에 미국 북감리교회 태평양 일본 선교를 담당했던 허버트 B. 존슨 박사를 파송하여 예배를 드렸으며, 정인표가 도미하기 2달 전인 1906년 12월에 미국 남감리교가 한인 선교를 맡았고 태평양지역 동양인 선교지방 감리사이자 내한 선교사였던 이 덕으로 알려진 클라렌스 F. 리드 목사가 캘리포니아 스트리트 2350번지에 상향 한국인 교회를 설립하고 한국에서 알았던 유학생인 양주삼 전도사를 파송하여 한국인 목회를 시작하였다. 위의 교회 건물은 3층으로 1층은 식당이었고, 2층은 예배당이었고, 3층은 숙소였는데 이곳에 야학을 설치하고 밤에 영어를 가르쳤다. 정인표는 바로 이 3층 숙소에 기숙하였을 것이고 야학에서 영어를 공부하였을 것으로 본다.

1907년 삭도한인감리교회 예배인도자로 4개월간 사역

1907년 8월에 정인표가 김유택과 윤경학과 함께 새크라멘토(삭도)가 기후가 적당하고 인심이 좋아 그해 10월에 삭도에 공립회관이 설립되는 대로 학생을 모집하여 공부하기를 꾀하더니 그달에 삭도로 이주했다. 그달 4일에 공립신보에 그의 "우리 청년은 기회를 잃지 말고 공부를 힘쓸 일"이라는 아래와 같은 기고문이 실렸다. 이 글에서 1905년 대한제국을 일본제국에 넘긴 을사늑약 이후의 한국인 크리스천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삭도 한인감리교회 예배인도자

1907년 8월에 정인표가 김유택과 윤경학과 함께 새크라멘토(삭도)가 기후가 적당하고 인심이 좋아 그해 10월에 삭도에 공립회관이 설립되는 대로 학생을 모집하여 공부하기를 꾀하더니 그달에 삭도로 이주했다. 그달 4일에 공립신보에 그의 "우리 청년은 기회를 잃지 말고 공부를 힘쓸 일"이라는 아래와 같은 기고문이 실렸다. 이 글에서 1905년 대한제국을 일본제국에 넘긴 을사늑약 이후의 한국인 크리스천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1907년 삭도한인감리교회 예배인도자로 4개월간 사역

1918년 12월 미국 부인과 결혼 후 한인사회와 떨어져

이 동행하여 삭도로 이주했으며, 새로 회원이 된 신영구와 함께 위의 3명을 위한 환영회가 있었다. 위의 황사용과 신영구가 본 교회에 출석하였을 것이다.

1908년 1월 7일에 정인표가 삭도 지방회 학무를 사임한 것으로 보아 삭도 한인감리교회 예배 인도자직도 사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정인표의 교회 사역은 1907년 10월부터 1908년 1월 까지 약 4개월간이었다.

1908년 1월에 정인표는 상향으로 이주했고, 양주삼 전도사가 목회하던 상향 한인감리교회에 다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해 4월 18일 토요일에 그는 상향에 거주하던 정한소의 병세가 위중함을 확인하고 그를 직접 데리고 86마일(138.4km)이나 떨어진 삭도로 갔고, 병이 위중하여 병원에 가지 못하고 한인 여관에서 치료하도록 했다. 그 후 그는 삭도 공립병원에 입원하였지만, 다음 달 11일에 이 땅을 하직하였다. 상향과 삭도의 한인들이 모금한 39달러 중 장비 22달러, 대장지 11달러, 표목가 75센트, 조화 75센트, 교통비와 체제비 4달러 50센트가 들었다고 장례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후 10: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915-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형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후 1:20 금요성경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7779 / facebook.com/jer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영어(영소, KOC, 침침드림센터) 새벽기도: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주일예배: 오전 2: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전 2:30 Tel: (213)559-7728 / 전혜복, 김경호,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정년부)수: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하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월요일: 오후 1:30 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엘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가족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장로교회와 합동목회) 성서학부 (월-금) 오아시스-오류스(400명) 사역대상: 1. 여학생자녀 2. 교회 청년도 마성리더 3. 가정사역 4. 캠퍼스사역 http://www.elp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새벽기도회: 365일 24시간 온선 Tel: (714)446-8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경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14)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i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sstoneivm.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 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go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일모임: '어성경' 읽어주세!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37)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개혁신앙 목회자(The Reformed Pastor)” (7)**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6. 죄 지은 자들을 신중하게 훈계하고 징계해야 한다.

우리는 말씀을 거스르며 회개치 않는 자들을 책망하고 훈계해야 한다. 죄가 얼마나 악하며 하나님과 자신들에게 얼마나 슬픈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라.

7. 교회 규율을 행사하는데 있어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보살피야 할 마지막 부분은 교회의 규율권 행사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회개에 대한 권면과 죄인을 위한 기도, 회개한 자의 복귀, 회개치 않는 자의 축출과 기피 등이 포함된다.

첫째, 공개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나 사적인 죄를 지었어도 끝내

이 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뿐이므로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이를 버린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만민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히 3:13). 이러한 목적을 위해 나는 우리의 공개적 권고에 교회에서 시행되기 바란다.

셋째, 이 책망 및 권고와 함께 우리는 온 회중과 더불어 죄인을 위해 합심 기도해야 한다.

넷째, 죄인이 회개하면 우리는 그를 교회의 교제 안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1. 오직 하나님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라

목회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만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 목회는 우리의 사육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다. 본질상 아무리 선한 일도 우리가 잘못된 목적을 갖고 행하면 완전히 그칠 수 있다. 자기 부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이지만 목회자에게는 더욱더 그러하다.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공부하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또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해 공부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2. 부지런하고 열심히 감당하라

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한 시간도 낭비하지 말고 오직 필수적인 일에만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장 유익한 길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양들을 가르칠 때 내용과 형식면에서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형식보다는 내용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이를 더 중요시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5. 단순 명료하게 하라

우리의 모든 가르침은 가능한 한 단순 명료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가르치는 자의 목적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의 능력에 맞게 말을 해야 한다.

**목회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구원만을 위해 행해져야
열심, 신중, 질서, 겸손하게 중대한 일부터 단순명료하게 목양**

회개치 않는 사람은 온 회중 앞에서 책망을 받고 다시금 회개하도록 촉구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규례 중에는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 없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만들지 않으셨을 것이다. 규율의 유용성은 분명하니 곧 죄를 부끄럽게 하고 죄인을 겸손케 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교회 및 그 가르침의 순결함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포기하는 것은 책망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훨씬 잔인한 일이 될 것이다. 아마 다른 어떤 방법도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최후의 처방이기 때문이다. 이 공개적 징계의 사용은 범죄자 자신을 위해서 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죄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회중과 그들이 예배를 순결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둘째, 책망과 더불어 우리는 죄 지은 자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이를 대중 앞에서 고백하여 교회의 인정을 받도록 권면해야 한다.

이 복귀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확신과 장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다섯째 이 규율의 마지막 부분은 충분한 시도를 거친 후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자들을 교회의 교제에서 축출하는 것이다. 회중 앞에서 저들이 교제를 피해야 할 사람의 이름을 공포해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의 명령이 하나님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죄인을 조심스레 피하는 것이 교인들의 의무이다. 만약 목회자의 권위와 사명이 교회를 인도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규율을 저버리는 것이 곧 목회를 저버리는 일과 근사함을 또한 알아야 한다. 또 목회를 저버리는 것은 교회를 저버리는 것이며 교회를 저버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임도 알아야 한다. 논리의 비약이 심하다고 비난하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서 책망 받을 일은 피하고 조심하라.

제 4장 목양의 자제

목회사역은 열심히 또 부지런히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목회자는 자기 지식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일에 특별히 더 열심을 내야 한다.

3. 신중하고 질서 있게 행하라

목회사역은 신중하고 질서 있게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회심자들에게 세례주기에 앞서 교리 문답으로 훈련을 시켜 전혀 걸림돌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4. 가장 중대하고 필요한 일들 위주로 하라

목회사역 전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필요한 진리들을 주로 강조해야 한다. 우리는 양들이 우리에게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주님의 사업은 세상일보다 더욱 중요한 만큼 우리 목회자는 더욱 그리해야 한

6. 겸손하게 행하라

우리의 일은 매우 겸손히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유순하고 낮은 자세로 일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는 그들로부터 배울 수도 있다는 자세로 가르치라.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이 교만이다.

7. 엄격함과 온유함을 적절히 배합하라

우리의 설교와 징계에는 엄격함과 유순함이 적절히 배합되어야 한다. 우리가 다루는 사안이나 사람의 성격과 비중에 따라 각각의 정도가 잘 조화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에게 전혀 엄격함이 없다면 우리의 징계가 멸시를 당할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매사에 지나치게 엄격하면 사람들을 설득해 진리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강제로 그들을 끌고 가는 독재자로 여겨질 것이다.

hyojungyoo2@yahoo.com

성품 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시대를 바꾼 사람들의 비밀

오늘날 우리가 가장 분별하여 배워야 할 성품은 무엇일까? 좋은나무성품학교에는 12가지 성품덕목이 있지만 우리 시대에 특히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순종’의 성품을 말하고 싶습니다. 순종이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롬5:19). 인류의 불행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 즉 자기 고집입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한 것이 인류를 죄의 길로 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교만과 의식에서 비롯된 불순종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창 3:8). 하나님과 깨어짐을 경험한 인간은 서로를 향해 더는 축복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2:23)”고 고백했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시작된 죄악이 우리의 삶을 모든 축복으로부터 가로막았습니다.

그레고리 맥도날드(Gregory McDonald)는 “순종이 모든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지식의 높고 낮음이나 인물의 아름다움, 명예와 부의 소유 여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세워 일하시고, 순종하는 공동체를 높이십니다.

우리는 가정과 학교에서 ‘순종의 축복’을 깨닫고 가르쳐야 합니다. 순종은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하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연합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관계성과 교제, 공동체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의 본질이지요.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부른 왕들의 시대에는 다음과 같은 결단이 공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역대하34:31-32).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함께 순종을 결단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인의 삶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되살아나며 국가가 복을 받는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순종의 성품으로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두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goodtreeusa@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 예배: 오전 11:30 주일 그룹 예배 및 기도회: 오후 1:00 주일 학교: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수요일 밤 8:00 다민족 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4:00-7:00</p> <p>Tel. (773)902-1112 estfcros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키온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Horsham, PA 19057</p>	<p>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Weymouth, MA 01978</p>
<p>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p> <p>Tel. (702)57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p>	<p>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www.je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p> <p>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536-6675, www.tacomacr.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목회서신

예수의 행복론(3) 영원의 시간 속에서...



강인국 목사 (미시안나한인교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복들은 건강, 장수, 풍족한 재물, 편안한 마음, 화목한 가족, 명예로운 삶 등일 것이다.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다. 사람은 육신적인 존재이기에 현세적인 복들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현세적인 복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성공적이고 부유하고 모두가 선망

하는 삶을 산다. 하지만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가정이 불화하고 이혼을 하고, 심지어 자살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한다. 그들도 화려한 모습 뒤에서 자신들 나름대로 감당하기 힘든 고민과 괴로움을 겪었다는 말이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행복이 없음을 보여준다. 현세적인 복은 매우 불안정하다.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하지만 사람이 오

래 살아 보아야 100살을 살지 못한다. 100년의 시간은 유구한 역사에 비하여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현세적인 복의 또 다른 약점은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 너무 짧고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네 번에 걸쳐서 "천국"과 관련하여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천국과 연관되어 있고, 참된 행

복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있음을 말씀해 주신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수많은 금은보화를 가졌고, 수많은 미인들을 처첩으로 거느렸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 보았다. 하지만 그는 사는 것이 괴롭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고 탄탄했다(전2:17). 솔로몬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덧없다고 탄식한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그 마지막 종착역이라면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고 참된 복은 현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 있다고 말씀한다.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현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영원한 나

래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을까?

그렇다고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고 천국만 소망하며 살자는 말은 아니다. 세상 사람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듯이, 성도도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한다. 하지만 성도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원한 가치를 부합하는 삶을 산다. 저 세상의 천국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먼저 천국을 경험하고 건설해야 한다.

솔로몬은 삶이 허무하다고 한탄했지만, 그의 결론은 사람은 창조자를 기억해야 한다고 권면한다(전12:1). 솔로몬은 현세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경험해 보았지만 참된 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사는 것임을 깨

달았다.

사람들은 이 세상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이 우리를 좀 힘들게 하여도 너무 괴로워할 필요 없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의 삶은 완벽하지 못하고 지극히 짧은 순간이며 성도는 천국에서 완벽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와 괴로움이 있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보다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할 것을 맡게된다. 참된 복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아, 영원한 것이 아니면 과연 무슨 가치가 있을까?
dik0184@yahoo.com



회원권과 징계 관련 정리

뉴욕교협 특별혁신기획위 4차 모임

뉴욕교협 특별혁신기획위원회는 7월 8일 교협청소년센터에서 4차 모임을 갖고 회원의 권리와 징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안했다.

제2장 회원 제6조(권리)→제7조(권리) △제1항: 본 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 교회대표(담임목사) 1인과 평신도대표 1인을 대의원(총대)으로 파송하여 의결과 선거 및 피선거권을 행사한다. △제2항: 총대 외의 활동에는 한 교회에서 한명의 대표만 활동할 수 있다(단 봉사의 성격이 강한 활동부서에는 실행위원회를 거쳐 2명 이상이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의결활동은 1명만 할 수 있다). △제3항: 신규 가입의 경우 가입승인 총회에서는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공동담임인 경우는 교회대표인 목사 대의원은 1인만

파송한다. △제4항(특별조항): 은퇴한 중경회장은 언권만 갖는다.

제8조(징계) 회원 교회 중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임실행위원회의 결의로 회원(교회 및 개인)의 권리를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1항: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교회 △제2항: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교회 △제3항: 헌법 및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한 교회 △제4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교회 △제5항: 제4조의 자격을 상실한 교회 △제6항: 이단·사이비로 판명된 교회 △제7항: 회원교회의 대표적 지위를 가진 목사가 개인적 일탈이나 본 회의 운영 및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를 한 자. △제8항: 본 회의 임원선거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유언비어, 항응, 매표, 금품수수, 회비대납, 심각한 윤리도덕적 결함 등 기타 본 회의 명예와 질서를 훼손한 자.

제9조 분할과 통폐합 △제1항: 회원교회가 비회원교회로 흡수 통합될 경우 회원권이 상실된다. △제2항: 비회원교회가 회원교회로 흡수 통합될 경우 회원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제3항: 두 회원교회가 통합하여 제3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경우 두 교회는 회원권을 상실하게 되며 새로 세워진 교회는 신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제4항: 회원교회가 복수의 교회로 분리될 경우 분리 이전의 법적인 지위를 승계한 교회는 회원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외에 혁신위는 ▲강화된 특별징계위원회 구성(특별 신학윤리 및 법규위원장 포함) 및 세칙 ▲외부회계감사와 내부행정감사 제도 설치에 관해 논의 중이다.

이날 참석자는 유상열 목사(위원장), 전희수 목사(부위원장) 현영갑 목사, 임병남 목사, 황영송 목사(사진).
(유원정 기자)



필라 영생장로교회 전가족 수양회가 하이브리드로 진행됐다.

팬데믹에도 신앙의 진전 이루는 교회

필라 영생장로교회, 하이브리드로 전가족 수양회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가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현장을 통해 하이브리드(유튜브 생중계와 On-site)로 전가족 수양회를 진행했다. 강사는 뉴저지 초대교회 담임 박형은 목사를 초청했으며 '기쁨회복'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수양회는 매일 저녁 1부 예배와 2부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모든 순서는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생

중계됐다.

27일에는 '영생가뮈런트'가 에스더전도회 주관으로 행해졌으며 28일에는 '간증과 담회'가 심수목 장로와 아하에 집사 인도로 진행돼 모두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다.

29일에는 '찬양콜센터'(인도 박형은 집사)가 진행됐는데 특별히 노인 아파트를 찬양팀과 방문해 위로하는 시간을 영상에 담아 이 시간에 전교인에게

송했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도전 골든벨 성경퀴즈대회'(주최 다니엘 남전도회)가 열려 줌(Zoom)과 카훿트(Kahoot!)을 이용해 창의적으로 진행됐다.

백운영 담임목사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듯이 팬데믹 시대에 필요한 온라인 접근을 잘 활용해 창의적으로 진행된 이번 수양회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어디에 있는지 영생장로교회 성도들은 한 공동체임을 다시 확인하고 주 안에서 기쁨의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6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언택트 VBS(Vacation Bible School)가 열렸다.

사전에 필요한 준비물(Kit)들을 Drive-Thru방식으로 배포하고, 정해진 시간에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든 예배와 활동(Activity)에 참여했다.

교회 측은 팬데믹을 통해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 되고,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회복과 진전이 이뤄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VBS라고 전했다.

영생장로교회는 팬데믹으로 전도와 선교가 어려운 현실 앞에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된 VBS의 모든 영상을 도움이 필요한 선교지에 배포해 전도와 선교의 진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영생장로교회)
(유원정 기자)

뉴저지 베다니교회 새 담임 배승린 목사

뉴저지 베다니교회 새 담임으로 배승린 목사(사진)가 부임했다.

교회는 지난달 초 담임목사였던 이기승 목사의 목사직 포기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배승린

목사가 담임으로 시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 목사는 감신대 신학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2부 오전 9:15 영 어 예배: 오전 10:45 수 요 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경음),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8시 Tel: (718)662-6611 142-01 38th Ave. Flushing NY 11354			뉴욕제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 회: 오전 5:30 수 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 요 기도 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www.nygetsem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진국 주일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일예배: 오후 08:45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일예배: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357-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일예배: 오후 08:45 금요일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 토 Tel: (718)265-2584, www.kc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전일합송: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전 일모임: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청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저녁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 한국인민문화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			어린양 개혁 교회 담임목사: 유승래 EM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 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 Tel: (845)848-2013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새벽기도: 오전 8:30 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종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61 Camboi S, Paulo Cep 01528-010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빈선대학교 교수 2. 김태우선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동부교계 기사판

플리머스 청교도 유적지 탐방

뉴욕기독교방송(대표 문석진 목사)이 주관하는 코로나19로 지친 목회자들의 휴식과 회복, 목상을 위해 정부흥 목사와 떠나는 '플리머스 청교도 유적지 탐방'이 8월 23일(월)과 24일(화) 이틀간에 걸쳐 열린다. 참가대상은 목회자와 사모, 전도사, 신학생, 선교사 우선이다. 선착순 30명 마감일은 7월 15일(목)이다. 여행경비는 일인당 290달러.

▲문의: (718)353-5545 정철호 팀장

낮은올타리 ZOOM VBS

낮은올타리 미주본부(대표간사 조희창 목사)가 주최하는 어린이를 위한 2021 ZOOM VBS가 7월 19일(월)-23일(금), 오전 10시-11시30분(미주동부시간) 진행된다. 대상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2021 봄 기준). 주제는 "Adventure Island Arise! Shine!"로 함께 아이스브레이크 게임, 찬양과 율동, 말씀, 성경공부 등으로 진행된다. 등록비는 50달러(둘째와 셋째는 각각 40달러).

젤라나 페이팔, 벤모로 입금할 수 있다. <https://forms.gle/ncYHqNJUU2vAEq8C6>

▲문의: (646)300-4790

뉴욕선교로교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

뉴욕선교로교회(담임 목사)는 7월을 선교의 달로 정하고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주제로 매주일 오전 10시 30분 선교세미나를 진행하는 가운데 17일에는 "교회의 선한 역사" (마28:18-20) 제목으로 강기봉 목사(뉴욕백민교회 원로)를, 25일에는 "왜 선교해야 합니까?" (사43:8-13) 제목으로 이용걸 목사(필라 영생장로교회 원로)를 강사로 초청한다.

▲문의: (718)640-4022, 490-6316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9월 10-12일

뉴욕교협 기자회견 열고 일정발표, 강사양창근 선교사

뉴욕교협의 가장 큰 연례행사인 할렐루야복음화대회가 9월 10일(금)부터 12일(주일)까지 사흘간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에서 열린다. 목회자 세미나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장소미정).

지난해에 이어 펜데믹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라 대면과 유튜브 생중계 병행으로 개최된다.

지난 8일 뉴욕교협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석호 목사는 경건회를 인도하며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사람으로부터 오기도 한다"며 "동석한 준비위원들을 격려하고 시종여일 한 마음으로 교협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열정을 계속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문 목사는 "교회는 선교의 씨앗이며 선교의 열매로 교회가 생겼다"며 선교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번 할렐루야대회는 "선교부흥 및 영성회복을 위한 대회"로, 강사도 파과과이 선교사인 양창근 선교사가 초청됐다.

양 선교사는 GMS 파송으로 30년간 현지인과 인디언 선교를 해왔으며 현재 생명의샘터 장로교회 및 4개 지교회 개척, 세인트폴스쿨(유치-고등학교) 이사장, EDELIN(인디언추장학교 교장), Foundation Arriba Paraguay(무로급식소, 인디언학교 교실건축, 휠체어나눔) 설립, Arriba Ninos Jovenes(어

린어, 청소년 대전도운동)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준비위원장 이준성 목사는 "회장님의 아우트라인을 갖고 세부사항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정과 장소, 강사, 준비위 조직을 설명했다.

이준성 목사는 "임원과 준비위원뿐 아니라 교회들이 후원해야 한다"며 "큰 교회, 작은 교회가 각각 자기 몫을 담당하도록 3단계로 나눠 후원금을 책정했으며 예산은 7만 달러(지

난해 6만 달러)로 잡고 있다"고 말하고 "준비위원들의 협력에 성과가 달려있다"고 준비위 협조를 강조했다.

뉴욕교협은 할렐루야대회를 홈리스(다민족) 대회로 계획했으나 홈리스들의 참석이 쉽지 않다는 사역자들의 의견에 따라 임원들이 직접 그들을 방문해 위로하기로 하고 대회는 예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했다.

준비기도회는 총 3회로 1차 7월 27일(화), 2차 8월 12일(목), 3차 8월 26일(목)이며 9월 8일 준비위 점검위원회가 열린다.

(유원정 기자)



KPCA 뉴욕장로회신학대학원) 학장 이취임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영적 능력을 두 배나 주소서"

뉴욕장신대(원) 김종훈 학장취임, 이기백 학장이임 예배

해외한인장로회(KPCA) 뉴욕장로회신학대학원) 학장 이취임 예배가 7월 3일 오후 6시 뉴욕에일장로교회(담임 김종훈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16대 학장 이기백 목사가 이임하고 17대 학장으로 김종훈 목사가 취임했다.

김종훈 신임학장은 취임사에서 "소박한 꿈 이야기"를 하겠다며 "오늘날 이민교회가 어려워 위 신학생이 졸업해도 사역할 곳이 없고, 전 세계는 펜데믹으로 멈춤을 경험하고 있는 현재가 남유다 말기 현상과 유사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을 갖고 계시다. 바로 교회다"고 말했다.

김 신임학장은 "신실한 종 한 사람을 찾는 신학교를 키우는 꿈을 가졌다"며 복음성가 가사를 소개하며 ①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학교 ②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학교 ③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는 신학생을 키우는 신학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백 이임학장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을 부르며 "제임 동안 첫째, 이 일이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둘째, 이 결정이 신학교에 덕이 될 것인가 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임했다"며 지난 4년간 함께한 동역자들에게 감사와 관용을 구한다고 말하고 신임학장을 축하했다.

이날 예배는 예일장로교회 찬양팀의 찬양이 있는 후 정석진 목사(이사장) 사회로 기도주영광 목사(뉴욕노회장), 성경봉독 조태성 목사(뉴욕장신대 동문회장), 찬양 예일장로교회 연

합찬양대, 설교 김창길 목사(전 총회장, 전 학장), 축하영상 이재광 목사(KPCA 총회장), 이상명 목사(미주장신대 총장), 허원구 목사(부산장신대 총장), 이임사 이기백 목사, 취임사 김종훈 목사, 공로패 증정(이기백 학장, 김성은 교무처장, 민경수 총무처장) 뉴욕장신대 이사회, 축가 뉴욕장신대 학우와 동문, 광고 이경세 목사(부이사장), 축도 조인목 목사(뉴저지노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김창길 목사는 "영적 능력을 두 배나 주소서"(황하2:8-1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뉴욕장신대 1978년 뉴욕한민교회에서 시작돼 43년간 218명의 졸업생을 내고 목회자와 선교사, 교수로 사역하게 해온 전통과 뿌리 있는 신학교"라며 "1)신임학장과 학생, 교수, 이사와 함께하는 학교가 되며 2)학생교수가 사제시간을 넘어 부자시간이 되며 3)새롭게 나감으로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비전을 보여주며 4)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나가는 신학교, 신임학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이날 사회를 맡은 22대 이사장 정석진 목사는 "학장 선출과정은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신임학장을 맞아 학교 미래가 밝다고 기대했다. 신임 김종훈 학장은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M.Div),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D.Min)를 졸업하고 뉴욕교협회장(39대),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40대)을 역임했다.

(유원정 기자)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일정발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센트럴교회 독립기념일 페스티벌에서 김재열 담임목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뉴욕센트럴교회, 독립기념일 페스티벌 개최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가 독립기념일에 지역사회를 위한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7월 4일 저녁 6시부터 교회당 뒤 잔디밭에서 각종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고 게임,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교제했다. 펜데믹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을 비롯해 특히, 젊은 성도들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 축제 분위기를 보였다.

김재열 목사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한다"며 "센트럴교회가 여기 들어온 지 4년이 된다. 처음에 2년은 정리하고 3년째부터는 지역사회와 타운을 섬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코비드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이제 코비드로부터 좀 자유로워져 처음으로 지역을 섬기기로 급하게 결정했다. 특별

히 (올드웨스트베리) 타운의 신임 에드워드 노빅 시장이 교회를 좋게 보고 후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우리교회가 지역을 위해 할 일은 기도하고 섬기는 일밖에 없다. 지역주민은 물론 한인들도 섬겨주고 한다.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교회를 정하지 못한 분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모든 가정과 타운을 축복하고 기도한다"고 인사했다.

김재열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서 에드워드 노빅 시장의 스피치 인사말도 있었다.

이날 CPC 유소옥세스트라 지휘 김지영)와 CPC 팝오케스트라(지휘 광병국), 엘리야남성합창단의 야외 공연이 있었으며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6월 월례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6월 월례모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이하 기아대책) 6월 월례모임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리빙스톤교회(담임 유상열 목사)에서 열렸다.

유상열 목사는 회장인사에서 "기아대책은 행사 위주가 아니라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매월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특별히 중요하다"라

며 참석 회원들을 환영했다.

예배는 박이스라엘 목사 인도로 한준희 목사의 기도 후 김종훈 목사(뉴욕에일장로교회 담임)가 "거꾸로 사는 지혜"(눅 9:2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종훈 목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의견이나 고정관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며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이나 부를



퀸즈장로교회 2021 전교인 여름수련회에서 교회오빠밴드가 공연하고 있다.

"은혜 입은 자의 삶" 주제

퀸즈장로교회 2021 전교인 여름수련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2021 전교인 여름수련회가 독립기념일 연휴였던 7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본 교회에서 열렸다. 매년 개최됐던 전교인 여름수련회는 지난해 펜데믹으로 열리지 못했으며 올해는 뉴욕이 7월부터 오픈됨에 따라 교회에서 개최됐다.

"은혜 입은 자의 삶"이란 주제로 강사로 조은아 교수(고든 콘웰 학장)를 초청해 진행했다. 조은아 교수는 복음성가 "하나님의 은혜" 작사가로 캐나다 이민 1.5세. 남평 전성걸 목사와 카즈흐스탄 선교사로 사역하고 플러싱교회 선교학 교수를 거쳐 2020년부터 고든콘웰에서 강의하고 있다.

수련회는 첫날 주일 오전 10시 2부 예배를 개최예배로 김성국 목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눅1:28) 제목의 설교 후 조은아 교수의 간증("하나님의 은혜"), 오후 2시 그루터기 청년예배에 김성국 목사가 "은혜

를 맡은 청지기"(벧전4:10) 제목으로 설교하고 이어서 리더십 특강(조은아 교수)가 있었으며 4시부터 교회오빠밴드와 함께 하는 선교회별 워십댄스 콘테스트("주를 기뻐해")가 열렸다.

저녁에는 교회주차장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은 오전 9시30분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해 조은아 교수의 간증("하나님의 갈망", 시139:7-12), 선교회별 기도회가 있었으며 오찬 후에는 영화 관람("미나리"), 아이스크림 브레이크, 폐회예배(조은아 교수, "하나님의 선교"계7:9), 저녁식사 순서로 진행됐다.

퀸즈장로교회는 6월 한달 매주 토요일 바자회를 개최해 선교후원금을 마련했으며 8월 12일부터 사흘간 교회를 플랫폼으로 온라인 단기선교를 계획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한인노숙인쉼터 구입 1차 목표달성

40만 달러...7월부터 2차 모금 시작

한인노숙인쉼터 구입 1차 모금액 목표 40만 달러가 달성됐다.

뉴욕나눔의집 대표 박성원 목사는 "지난 6월 30일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박 권사가 10만 달러를 전달함으로 1차 목표액을 달성했다"며 "7월 1일부터 2차 후원 모금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차 모금액 목표는 60만 달러다.

박성원 목사는 "70년대 이민 온 박 권사님은 2015년부터 뉴욕나눔의집이 재정적으로 위기를 당할 때마다 큰 도움을 주셨다. 이번 쉼터 구입에도 큰 힘을 실어줘 한인동포사회를 위해 봉사하게 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 또한 한인동포들과 가

관, 단체, 종교단체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했기에 성취됐다"고 전했다.

또 7월 7일에는 제미부동산협회에서 1500달러,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500달러, 퀸즈침례교회 200달러, Young Soon Chu 300달러, 뉴저지 전명숙 씨가 3000달러를 후원했다.

한편 지난 5월 CTS뉴욕은 특별 제작한 한인노숙인 쉼터 구입 후원 모금방송을 통해 뉴욕나눔의집의 안타까운 상황과 감동스토리를 나눴다. 특별후원영상을 보려면 나눔하우스 혹은 뉴욕나눔의 집, nanoomhouse로 클릭하면 된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먼저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를 생각하라 하셨다"고 말하고 거꾸로 사는 지혜 3가지를 설명했다.

김 목사는 "첫째, 주면 받는다(눅6:38), 둘째, 약한 데서 강해진다(고후12:9), 셋째, 아무 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다(고후6:9-10)"며 "이 시대가 캄캄한 풍랑의 시대지만 하나님께만 연결돼 있으면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 수 있다. 먹을 것과 복음을 주고 생명을 나눠주는 기아대책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합심기도는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및 회원을 위하여 △결연아동과 후원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 페루 김중원 최은실 선교사, 과테말라 장경순 박윤정 선교사, 코트디부아르 김형구 이선미 선교사, 엘살바도르 환영진 황은숙 선교사) 제목으로 박이스라엘 목사가 인도했다.

예배는 김종훈 목사 축도로

마쳤다.

2부 회의는 유상열 목사 사회로 이종명 목사 개회기도 후 회장인사, 사역보고 박진하 목사, 폐회기도 조성숙 목사, 식사기도 박성원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종명 목사는 "기아대책이 구가 날로 부흥 성장 발전하며 회장 이하 임원들이 지지 않게 주께서 동행해주시길" 기원했다.

사무총장 겸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박진하 목사는 1/4분기 아동후원금 82명분을 송금했으며 6월말 현재 잔액은 7,335달러, 일반재정 잔액은 4,735.14달러로 보고했다.

기아대책은 주 사역으로 제3세계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후원비는 1명당 월 30달러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breadgospel.org)를 참고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미주성시화운동본부는 선교용 선풍기 전달식을 가진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선풍기 전달식

날개 없는 선풍기, 80교회와 20기독단체에 기증

미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 회장 송정명 목사)가 주최한 날개 없는 선풍기 전달식이 6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Southwest Express 18001 S. Figueroa St에 있는 수입회사에서 총무 김시은 목사 사회로 열린 전달식에서 송정명 목사는 "이 선풍기를 기증한 사업가는 생산 공장에서 이곳까지 운송하는 운송비만도 5만여 달러가 소요됐다고 한다. 이 선풍기가 선교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김재권 장로(이사장 권한대행)는 경과 및 취지를 설명하고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가 기도하고 이성우 목사(삼일 본부장)가 배부 지침을 설명하고 축하 순서에서 원성택 목사(템플레교회) Kenneth Kho 목사를 끝으로 전달식 순서를 모두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전달식 행사를 마쳤다.

날개 없는 선풍기는 LA총영사관과 나성순복음교회 등 80여 교회와 남가주교협 등 20여 선교단체에 전달됐다.

(정리: 박준호 기자)

7년간 기도하며 기다렸다...

CMF선교원 제프김 부부선교사 파송예배

CMF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은 지난 7월 3일 제프(Jeff)와 린다(Linda)김 부부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렸다. 김철민 장로의 사회로 열린 파송 예배는 김인철 목사(오렌지가나안교회)의 기도, 류원경 간사의 바이올린 독주 후에 강승영 목사(전 JAMA 대표)가 설교했다.

강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영국 웨일즈로 파송되는 선교사님 내외의 선교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웨일즈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했던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곳이고 평양부흥운동의 진원지였다. 영국에서 중국으로 파송됐던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대동강에서 성경책을 던지며 '주 예수의 구원'을 외치다 순교할 당시 27세였다. 그는 대동강에서 목을 치는 군관에게서 성경책을 건네주었고 그

것이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씨앗이 됐다"고 말했다.

강 목사는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다. 웨일즈로 파송되는 김 선교사부부가 마치 바나바처럼 사용돼 선교지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설교 후 서약식과 안수식, 파송패 전달, 권해연 선교사의 '나를 부르소서'란 독창, 엄영민 목사(전 KPCA 총회장)의 축사가 있는 후 제프 선교사의 답사가 있었다.

제프 선교사는 "지난 7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CMF 선교회원님들의 기도의 후원으로 이제 선교지로 가게 돼 참으로 감사하다. 오늘 주신 격려와 당부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역에 충성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CMF선교원)



CMF 선교원은 제프 김, 린다 김 선교사 영국 파송 감사예배를 열었다



효사랑시니어대학 대면강의가 시작되었다

효사랑 시니어대학 대면 강의 시작

13일 오리엔테이션 후 매주 화 오전 9-12시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가 운영하는 효사랑 시니어대학(학장 김종배 장로)이 7월 13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대면 강의를 오픈했다.

효사랑 시니어대학은 팬데믹 기간에도 끊임없이 시니어들을 위해 유튜브 동영상으로 강의를 진행해왔다. 팬데믹이 완화되는 가운데 효사랑선교회는 지난 6월 5일 시니어대학 강사 미팅을 하고 대면 강의를 준비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다양한 과목(성경과노라마, 음악교실, 하모니카, 난타, 힐링댄스, 두뇌 훈련, 컴퓨터 교실 등)들을 준비했으며, 시니어대학 강의 외에도 특별강좌(사진교실, 캘리그래피 아트, 색소폰)를 개설하고 학생들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또한 대면강의뿐 아니라 계속해서 유튜브 영상강의를 업로드 할 예정이어서 대면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을 집에 돌아와서도 유튜브 영상강의를 통해 반복적으로 익히며 배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준비할 계획이다.

효사랑 시니어대학 대면 강의 수업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약 5개월간 진행(등록비 월 50달러 점심 식사 제공)될 예정이며, 8월 첫 주부터 시작되는 사진교실, 색소폰교실, 캘리그래피 아트 등의 특별강좌는 3개월 코스로 선착순.

대면강의수업은 먼저 Buena Park 캠퍼스에서 시작한다. 주소는 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

▲문의: (714)670-8004, (562)833-5520

(기사제공: 효사랑선교회)

서부교계 게시판

남가주든든한교회 말씀과 간증집회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목사)는 '한 달란트'의 저자인 박성현교수를 초청하여 '말씀과 간증집회'를 25일(주일)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세 차례에 걸쳐 갖는다. 박성현교수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고고학 및 인문학 학사,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에서 고고학 석사,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근동어 문학과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고든콘웰 신학대학원 석사고학/구약학 교수로 섬기고 있다. 한편 박성현교수는 18일(주일)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목사)에서 집회를 인도한다.

문의: (213)481-2779

2021년 온라인 사랑의 캠프

밀알선교단 서부지단(남가주, 북가주, 밴쿠버) 연합 사랑의 캠프가 오는 29일(목)부터 31일(토)까지 'Jesus Connection(요15:5a: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사랑의 캠프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열리게 됐다.

▲문의: (562)229-0001

이단대책 세미나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회장 한선희 목사)가 개최하는 이단 대책 세미나가 오는 7월 18일(주일) 오후 2시, 7월 25일(주일) 오후 2시, 8월 1일(주일) 오후 2시에 LA 백송교회(담임 김성식 목사)에서 열린다. 첫날엔 '이단의 이해와 한국인의 종교심성', 둘째 날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셋째 날엔 '인터콧'을 주제로 열리며 강사는 한선희 목사, 백송교회 주교는 3251 W. 6th St. #B1, LA, CA 90020.

▲문의: (213)674-7966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 세미나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는 '소셜워크의 자격과 전망'이란 주제로 사회복지 세미나를 개최한다. 7월 27일 오후 3-4시(미서부시간) 줌으로 열리며 강사는 이현아 교수(사회복지학과 디렉터). 참가비는 없으며 소셜워크에 관심 있는 50명을 선착순으로 등록 받는다. 신청자에 한해 줌에 접속 번호를 전달한다.

▲문의: (213)388-1000, admission@wmu.edu

소망소사이어터 7월 웨비나

소망소사이어터(이사장 유분자 장로)가 주관하는 7월 '소망 웨비나'가 '심장 부정맥 이해하기'란 주제로 오는 7월 21일(수) 오후 3시30분(미서부시간) 개최된다. 강사는 노태호 교수로 전 대한 심장학회 회장, 현 가톨릭의대 명예교수로 있다. 한편 제4회 '죽음준비 전문교육'은 7월 22-23일(목, 금) 오전 9시-오후 5시 온라인으로 열린다.

▲문의: (562)977-4580

FACE 14-24세를 위한 Youth 인턴십 프로그램

LA카운티에 거주하는 14-24세의 소외된 청소년이 직업을 갖도록 준비시키고 도와주는 FACE AAPI Youth@Work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LA카운티의 40개 부서 중 하나 또는 민간 및 비영리 기업과의 관심을 따라 학생들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는 인턴십 120시간으로 시간당 15달러, 직접 및 가상직업 기회를 가지며 멘토와 연결하고 리더십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다.

▲문의: pathways@facela.org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 학생모집

8월 23일 개교 유치원-5학년 대상

베델교회(담임 김한우 목사)가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Bethel Classical Academy)'를 설립하고 학생을 모집한다. 오는 8월 23일 개교를 앞두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이 학교는 타민족을 포함한 지역사회 크리스천 자녀들의 등록도 받고 있다.

이번 가을학기부터 시작되는 이 학교는 첫해인 올해에는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의 학생으로 시작하고, 이후 매년 한 학년씩 늘려서 7년 후에는 K-12 학년이 세워질 계획이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성정체성과 관련한 성교육과 평등에 관한 문제들이 입법화되면서, 공립학교에서도 점점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인 가치가 교과목으로 지정돼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의 우려와 반발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베델교회는 성경적 자녀교육의 문제를 놓고 여러 방면으로 연구해왔다. 연구 결과 학교와 교회,

가정이 하나가 돼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초를 둔 교육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지혜와 인성을 갖추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당당한 리더들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해 베델클래식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됐다.

교과과정은 현재 공립학교들이 채택하고 있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클래식(고전) 교육에 기반한 트리비엄, 즉 문법, 수사법과 논리를 중심으로 한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이 가르치게 된다.

각 클래스의 인원은 최대 15명으로 제한해 교사들이 학생 개인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업성취도가 뛰어난 학생들을 위해 영재교육과정도 운영하며, 크리스천으로서의 인격과 덕성을 쌓아 영적, 정서적인 면에서 균형 잡힌 학생들로 양육하기 위해 일반 교과목(아카데미)과 더불어 음악, 미술 등의 교과목을 접목한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다.

일반 사립학교보다 저렴한 등록금과 다수 자녀 할인, 재정적 필요에 따른 장학금 혜택, 방과후 케어 프로그램 등으로 학부모들을 도울 계획이다.

온라인 입학지원서는 베델교회 홈페이지 www.bkc.org에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 bethelclassical@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와 화랑청소년재단 단체기념사진

소외계층 50가정에 한국 식료품 지원

한인가정상담소 사랑의 장바구니 나눔행사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엄)가 지난 6월 25일 소외계층 50가정에 한국 식료품을 지원하는 나눔 활동을 벌였다.

화랑청소년 재단과 재외동포재단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탁아동, 가정폭력 피해자, 싱글맘, 서류미비자 등을 위해 한국 식료품으로 구성된 사랑의 장바구니를 전달했다.

당일 화랑청소년재단 남가주 16개 지부에서 모은 구호식량과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으로 구매한 식료품들을 화랑청소년재단 10여명의 학생과 어머니들이 한인가정상담소에 모여 직접 사랑의 장바구니를 만들었다. 장바구니에는 참기름, 된장, 미역, 다시마, 카레, 마른 밀

치, 사골곰탕, 김, 라면, 캔류 등의 식료품이 담겨있다.

캐서린 엄 소장은 "후원해주신 화랑청소년재단과 재외동포재단, 특히 직접 봉사에 참여해준 화랑청소년 재단 학생과 어머니들에게 감사하다"며 "힘든 가정에 사랑의 장바구니가 도움과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화랑청소년재단 박윤숙 총재는 "소외된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마음 따뜻한 마음들이 더욱 모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만들어진 50개 사랑의 장바구니는 한인가정상담소의 담당 소셜워커를 통해 각 가정으로 전달됐다.

▲문의: (213)235-4848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커피브레이크 국제컨퍼런스가 줌으로 열렸다

온라인으로 14개국 180여 교회 411명 참석

제13회 커피브레이크 국제 컨퍼런스

제13회 커피브레이크 국제 컨퍼런스가 '소망을 따르는 기쁨(Joy in Hope)'이라는 주제로 지난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열렸다.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는 팬데믹 상황으로 24년 만에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돼 미주 지역뿐 아니라 14개국 180여개 교회, 총 411명이 참석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주제 본문으로 어느 해보다 다양한 강사진들이 20여개의 알찬 강의로 섬겨줬다. 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이 59개 소그룹으로 나뉘어 성경발견학습 모임을 통해 스

스로 체험하고 배우는 자리가 됐다.

온라인 컨퍼런스의 첫 열매는 평소 커피브레이크의 양육과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던 지역과 해외에서 물리적 거리와 국경을 넘어 함께 할 수 있었던 점이며, 시간차이로 참여가 어려웠던 분들에게는 녹화영상의 다시보기가 제공돼 말 그대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말씀잔치가 된 점이였다.

두 번째 열매는 전도와 양육이라는 공통의 비전을 갖고 다른 지역과 국가에서 온 동역자들을 만나 서로에게 힘과 격려

가 된 점이다. 소그룹의 성격상 사역에 참여해도 몇몇 사람만 만나게 되는데, 많은 지역과 국가에서 같은 사역을 하는 분들과의 만남으로 하늘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는 비전을 갖게 된 분들이 의외로 많았다.

세 번째 열매는 커피브레이크의 문화인 소통과 참여를 온라인 컨퍼런스에 반영해 양육과 복음 전파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대부분의 온라인 행사가 One Way 형태의 웨비나를 선택하는 반면, 이번 커피브레이크 컨퍼런스는 400명이 넘는 인원이 줌미팅을 통해 라이브 방식으로 진행해 활발한 양방향 소통이 이뤄졌다.

커피브레이크는 올해로 사역 51년을 맞으며, 현재 20여 개가 넘는 나라에서 약 55개 이상 교단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영혼구원을 위한 말씀 소그룹' 사역이다. 국제컨퍼런스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소그룹 사역자들을 준비시키며 서로를 격려, 연결시켜 가정과 공동체가 변화되고 하나 되게 하는 목적으로 열리며 해마다 미국과 한국에서 돌아가며 개최되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

빠르게 느는 '이중직 목사' 논의

주요 교단들 9월 정기총회 앞두고 '허용 법제화' 활기

주요 교단의 9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목사 이중직' 허용 법제화 논의가 활발하다. 일부에서는 이중직 목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법제화는 타당공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목사 이중직에 대한 논의가 불붙는 건 그만큼 직업을 가진 목사들의 수가 늘고 있어서다. 이중직 목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16년 만들어진 뒤 9897명이 활동하는 페이스 북 페이지 '일하는 목회자들' 회원 중 절반 이상이 이중직 목사 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과 통합·고신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 주요 교단 목사는 2019년 기준으로 6만 8658명에 달한다. 이중직 목회의 법제화가 아직 걸음마 수준인 데도 적지 않은 목사가 별도의 직업을 가진 걸 알 수 있다.

이중직 목사가 생기는 건 교회 개혁 후 자립이 어려운 게 근

본적인 이유다. 교단마다 다르지만 1년 예산 3000만~3500만원 이하의 교회를 미자립교회로 분류한다. 그동안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여러 지원책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중·대형 교회들이 선교비 예산을 축소하면서 지원의 문이 닫혔다. 교회 유지를 위해서라도 목사들이 구직 활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 된 셈이다.

교단들도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18일 예장통합 총회가 연 포스트코로나 시대 목회전략연구위원회 공청회에서는 이중직 목사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이중직 목사에 대한 교단 내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 9월 열리는 106회 총회 때 법제화도 가능할 거로 내다봤다.

기감은 2016년 이중직 목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9월 예장고신 총회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총회를 연 예수교대한성결교회도 이중직 목사를 허용하는 법

을 제정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교단이 '미자립교회 목사'에 한해 이중직을 허용하는 '반쪽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오히려 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다.

안준호 이중직목회자연대 대표는 28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미자립교회 목회자만 심사 후 이중직을 허락한다는 제한 규정 자체가 차별"이라며 "대형 교회가 카페 운영하는 것과 개척교회가 카페 운영하는 것 모두 따지고 보면 이중직인데 교회 규모도 이중직을 가르는 기준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안 대표는 "모든 목사가 생활인으로 살며 목회하고, 목회하며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과일가게 '스위트리'를 운영하는 박오섭 미와십자가교회 협동목사는 "총대들이 실제 이중직 목사들의 고민이 뭔지, 뭐가 필요한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이중직 목사와 교단이 함께 성숙할 수 있을지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과 괴리된 법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슬람권 사역 선교사 최소 849명

김아영 교수, 기독교사상 7월호에 현황 첫 공개

이슬람 국가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가 최소 8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수가 공개된 건 처음이다.

김아영 햇볼트리니티신학대 학원대 교수는 이슬람 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13개 단체와 개별 접촉해 파악한 파송 선교사 현황을 담은 '팬데믹을 경험한 이슬람 선교' 기고문을 기독교사상 7월호에 게재했다.

김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한국이슬람연구소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의 이슬람 선교 전반을 다루는 연구논문을 내년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파송 선교사 수와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드러나지 않았던 건 이슬람 국가 선교가 극도의 보안을 요구했기 때

문이다. 하지만 무리하거나 독단적 사역을 지양하는 건강한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들이 한국교회와 선교 현황을 공유해 이슬람 선교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이슬람 국가 선교사 파송과 우리나라에 온 이주 무슬림 사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최대 40%의 선교사가 귀국한 단체가 있을 정도로 사역이 위축됐지만 점진적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로 이주하는 무슬림도 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선교도 확대해 이방인을 환대하는 사역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이 된 13개 선교단

단체명	파송 선교사	파송액
HCFE	72명	11개
프론티어 선교사	30명	15개
GMP	50명(2019년)	21개
ARM 선교사	9명	대부분 1명씩
GO	30명	
신앙사역 선교사	45명	6개
MVP	69명	4개 단체
OM 선교사	34명	35개
TIM	55명(2020년)	17개
SAM	16명(2020년)	8개
W* 선교사	11명(2019년)	22개
GP	47명	14개
복음선교회	59명(2019년)	26개

*1990년 이후 1997년 이후를 말한다. 2020년 1-2월의 파송액만 집계

는 전방격적 사역을 비롯해 의사와 교사·교수 활동을 통한 전문인 사역, 비즈니스 사역 등을 하며 무슬림 선교의 좁은 문을 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선교단체들은 현지에서 여러 단체끼리 협력사역을 하는 게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대안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여성 선교사를 통한 무슬림 여성선교를 확대하는 것도 포스트코로나 선교의 대안으로 꼽혔다.

부모·가정예배 비중 높아졌다

코로나 확산 이후 청소년 신앙생활 변화 조사

코로나19 확산 이후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에 목회자나 교회학교 교사가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든 반면 가정 신앙 교육의 중요성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는 지난 4월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항목(중복 선택 가능)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꼽은 응답자가 각각 54%, 33%로 가장 많았다. '목회자'라고 답한 학생은 25%에 머물러 2019년의 33%보다 떨어졌다. '교회 학교 교사'의 영향력도 11%에

그쳐 2019년(19%)보다 크게 감소했다.

신앙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청소년 50%가 '교회예배 설교'라고 답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가정예배(27%)', '성경 읽기·큐티(24%)', '교회 내 소그룹 활동(18%)' 등을 꼽았다. 2019년 조사와 비교하면, '집회·수련회'가 37%에서 12%로 많이 감소한 반면 '가정예배'는 8%에서 27%로 뛰었다. 연구소는 "코로나 이후 가정 신앙 교육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만족하는 주일 예배 형태로는 '현장 예배'를 꼽은 응답자가 87%, '온라인예배'가 78%, '방

송·가정예배'가 69%로 조사됐다. 온라인 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도 온라인예배보다 현장 예배를 선호하는 것이다. 문자나 유튜브 등 다른 일을 하면서 온라인예배를 드렸다는 청소년이 44%나 돼 온라인예배의 집중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 종식 후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예전과 같이(현장 예배)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답한 청소년 비중(68%)이 성인(77%)보다 낮았다. 온라인예배에 주력하거나 온라인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겠다는 답한 청소년이 22%였고 '잘 모르겠다'고 유보한 청소년이 11%였다. 연구소는 "청소년의 3분의 1은 코로나 종식 후 온라인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엇비슷하다"고 밝혔다.

"성도 간 교제 및 공동체성 강화"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 과제는...리얼미터, 성결인 2000명 설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주안점을 뒀어야 할 점으로 교회 공동체성 강화라는 과제가 제기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한국성결신문 의뢰로 코로나 이후 신앙인식에 대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3~26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목회자와 성도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성결인들은 '코로나 시기 주일예배 방법'에 대한 질문에 48%가 '현장 및 온라인예배를 병행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장예배(28.5%) 온라인예배(18.5%) 가정예배(2.5%) 순으로

나왔다.

'코로나 이후 선호하는 예배 형태'를 묻는 말에 절반에 가까운 45.2%가 '현장 대면예배(강화)'를 꼽았다. '현장 및 온라인 예배 병행'이 43.2%로 근소하게 그 뒤를 이었다. '현장예배를 온라인예배로 대체해야 한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코로나시기를 거치면서 현장예배가 소중하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직분별로 분류해보면 담임목사, 장로, 권사의 경우 '현장예배 강화'를 택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부교역자, 집사, 청년 등의 경우 '현장 및 온라인

예배 병행' 응답이 높았다.

교회 공동체성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직면할 어려움'에 대해 '성도 간 교제 및 공동체성 약화'(32.3%), '모이는 예배 감소(주일성수 약화)'(29.9%), '교회 신뢰도 하락'(15.5%), '전도 및 새신자 유입 약화'(14.9%) '대면 교육과 훈련 약화'(3.8%) 순으로 나왔다.

주상락 명지대 교수는 "한국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예배와 제한된 모임으로 교회의 공동체성 약화를 경험했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기독교 공동체의 영적 자산인 환대와 섬김, 코이노니아(교제)를 통해 진정한 공동체적 교회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대처 등 협력"

예장 통합·합동 총회임원 연석회의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신정호 목사)과 예장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 총회 임원들이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한국교회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총회임원 연석회의는 두 교단 임원이 교제하고 한국교회 현안

에 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해왔다. 올해 회의의 주된 현안은 차별금지법이었다. 두 교단은 최근 논의되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함께 대처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한 신정호 목사는 "고령화와 저출산, 코로

나19에 차별금지법 등으로 한국교회가 위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양 교단이 하나님 중심으로 협력해 한국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잘 감당하자"고 말했다.

교회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소강석 목사의 메시지는 고령기 예방활동 총무가 대신 전했다. 소 목사는 메시지를 통해 "오늘 만남이 한국교회 하나 됨에 큰 결실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세아연합신학대, '아신대학교' 로 바뀐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총장 직무대행 한상화)가 최근 '아신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영문 이름도 'ACTS University'로 바꿨으며 한자명은 '亞神大學校'이다.

아신대학교는 교명 변경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설문조사와 설명회, 주요 위원회, 교수회의, 대학평의원회, 이사회 등의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 1일 교육

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 아신대학교 교명 변경은 기존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를 줄여서 부를 때 통상적으로 '아신대'로 사용됐던 친숙함을 유지하면서, 기존 교명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신대학교는 교명 변경과 함께 대학 비전인 'ACTS 2030, 사랑을 세우고 열방을 품는 대학'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는 '아세아와 세계 복음화에 기여함'이 설립 목적이다. 기독교 복음을 아시아에 전파하는 선교 활동을 통해 아시아의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킨다는 사명으로 40여년간 달려왔다.

아신대학교는 교회연합으로 세워져 운영하는 국제적인 복음주의 신학대학교로, 신학 연구와 선교교육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사역자를 양성한다.

아프리카 차드·토고에 성경 기증

대한성서공회, 불어성경 각각 9903부·9977부

대한성서공회(사장 권의현)는 경북 경산중앙교회(김종원 목사)의 후원으로 아프리카 차드와 토고에 각각 불어 성경 9903부와 9977부를 기증했다고 5일 밝혔다. 기증식은 지난 3일 경기도 용인 대한성서공회 반포센터에서 열렸다.

차드는 현재 나라 곳곳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포진돼 있으며 빈곤으로 다수의 국민이 고통당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차드성서공회는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자국 기독교인에게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을 바탕으로 글을 가르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토고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국가 특성상 타 종교에 비해 부족 중심의 애니미즘과 토착종교가 강세를 보인다. 토고성서공회는 애니미즘과 토착종교에 빠진 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하기 위해 각

지에 성경을 보내는 일에 힘쓰고 있다.

김종원 목사는 기증식에서 "현지에 역사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차드와 토고에 성경을 보낸다"고 밝혔다. 호재민 대한성서공회 총무는 "차드와 토고에 보급되는 불어 성경이 이슬람 세력의 위협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현지 기독교인에게 힘이 되고, 이들 나라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하게 쓰이길 소망한다"며 "성경 제작 시설이 없는 이들 나라에 성경을 후원해준 경산중앙교회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인터콥, KWMA 징계결정 직후 자진 탈퇴

국제선교단체 인터콥선교회가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KWMA)의 징계 결정 직후 자진 탈퇴했다.

KWMA는 "28, 29일 부산에서 법인이사회를 열고 인터콥에 대해 2년간 회원권 정지, 3년간 지도도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월 KWMA 정책위원회가 인터콥 제명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정책위는 당시 "인터콥은 선교현장에서 교회, 선교계와 독단적 부조화를 지속해 왔다. KWMA의 지도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한국교회로부터 항의 받아왔다"며 "인터콥의 행동은

한국사회와 기독교계 정서에 반하고 한국사회가 한국교회와 선교에 부정적 태도를 갖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정책위의 제명 건의에 법인이사회는 징계로 가닥을 잡았다. KWMA 강대홍 사무총장은 "인터콥에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 선교적 역할을 감당했다는 점은 사실"이라며 "제도권 안에서 한국교회와 함께 갔으면 한다는 판단에 따라 제명이 아닌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징계 사실을 확인한 인터콥은 내부 논의를 거쳐 탈퇴서를 제

출했다. 강요한 인터콥 사무총장은 "인터콥의 KWMA 탈퇴 문제는 오랜 시간 소모적 이슈였다"면서 "중요한 사역이 많은 KWMA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터콥은 탈퇴서를 통해 KWMA의 지도를 받으며 노력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논란의 대상이 된 데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그러나 울 초 인터콥이 운영하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진 뒤 언론 보도에 대해선 "사실 왜곡과 과장 보도로 억울한 면이 적지 않았다"며 불평함을 드러냈다.

33개국 70여명 재충전 시간

세기총, 한인여성선교사 초청 선교워크숍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심평중 목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여성 선교사들을 초청해 위로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 한양여자대학교 청소년수련원에서 '여성선교사 초청 선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세기총과 KWMA 한인세계여성선교사회 소속 한인세계여성선교사회(회장 배점선 선교사)의 공동주최, 세기총 선교지원협력위원회(위원장 황의춘 목사)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세계 33개국의 70여 명의 한인 여성선교사가 참석해 1박 2일간의 일정을 함께했다.

첫날 환영사를 전한 황의춘 목사(세기총 선교지원협력위원회 위원장)는 "코로나-19가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에게 더 위험한 것처럼 영적 생명력이 있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선교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

나고 소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격려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인사를 한 대표회장 심평중 목사는 "대한민국에 복음이 증거되고 선교강국이 된 것은 바로 여성 선교사님들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 힘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져 세계 복음화의 가장 선봉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인세계여성선교사회 회장 배점선 선교사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여성선교사님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하여 오늘의 모임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며 의미 있는 워크숍이 되길 소망했다.



이날 개최예배는 한인세계여성선교사회 회장 배점선 선교사의 사회, 김기태 목사(세기총 공동회장)의 기도, 장왕봉 선교사(러시아)의 특별찬양에 이어 김요셉 목사(세기총 증경대표회장)가 '예배에 성공하라'라는 제하로 말씀을 전한 뒤 고시영 목사(세기총 증경대표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비전을 말하고 선교를 꿈꾸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증경대표회장 황의춘 목사, 조일래 목사, 고시영 목사가 강연했으며 저녁사경회와 선교사들의 선교지 소개시간 등이 있었다.

둘째 날 오전 경건회를 마친 여성선교사들은 아침식사 후 '만리포 기름유출 기념관 및 만리포 해수욕장'과 '천리포 수목원'을 방문해 힘의 시간을 가진 뒤 모든 순서를 마쳤다.

(기사제공: 세기총)

선교의 창 (173)



송종목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선교 동원가로 헌신했던 존 모트(John R. Mott)

“우리 세대 안에 세계를 복음화 시키자!” 이는 1888년 결성된 학생선교 지원자 운동(SVM: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의 표어였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세계선교를 향한 황금시대였다. 그 중심에 SVM이 있었다. 본 단체를 통하여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났다. 그들은 SVM 선언에 서명한 후 5대양 6대륙으로 떠났다. 그 숫자가 무려 20,500명이나 되었다. 문명이 열약한 시대에 어떻게 이 많은 청년들이 헌신할 수 있었단 말인가? 당시 SVM은 선교사 파송의 못자리였다. 주목할 것은 그 단체를 이끈 지도자이다. 존 모트는 직접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 않는 대신 SVM과 YMCA를 통하여 지대한 선교적 공헌을 하였다. 만일 그가 없었다면 2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동원되었을까?

21세기 세계선교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COVID19로 인한 선교 환경변화가 아니다. 바로 사 람의 문제이다. 선교를 위해 일사각오(一死覺悟)의 정신으로 자기 생명을 담보한 헌신자들

이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존 모트가 살아 있다면 가슴을 칠 것이다. 우리는 다시 역사 속에서 그를 불러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선교적 꿈과 열정과 역동성을 새롭게 회복해야 한다.

1. 존 모트의 헌신 배경

존 롤리 모트(John Raleigh Mott, 1865년 5월 25일-1955년 1월 31일)는 미국 뉴욕에서 4남매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나 성장한 곳은 아이오와(Iowa) 주이다. 그가 태어나던 해 9월에 가족이 이사를 했기 때문이다. 그의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으며 목재상으로 부유한 편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서 신앙교

육을 받았으며 감리교회에 성실히 출석했다. 그는 커가면서 매일 신약성경을 한 장씩 읽었다. 스스로 영적성장을 위해 노력을 한 것이다.

모트는 사리 판단이 정확하고 지적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 또한 여러 차례 웅변대회에 출전해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16살이 되던 해 아이오와(Upper Iowa University)대학에 입학해 역사와 문학을 공부했다. 모트는 아이오와 대학을 졸업한 후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해 코넬(Cornell)대학 2학년으로 편입했다. 이때가 1885년 가을이었다. 그는 코넬대학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의 길로 인도되었다.

2. 존 모트의 선교 헌신

1886년 1월 14일이다. 모트는 진로를 놓고 고민하던 차 어느 선교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강사는 영국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던 스투드(C.T. Studd)였다. “당신을 위해 위대한 것을 찾겠는가? 그것을 구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마6:33). 모트는

사상과 영적 투쟁으로 계속 가득 찼다.”

1886년 여름 존 모트는 복음 전도자인 D. L. 무디의 지원으로 매사추세츠 주 험몬산(Mount Hermon)에서 열린 첫 번째 기독교 학생 수련회에 참석했다. 집회는 한 달간 열렸고 미국과 캐나다의 89개 대학에서 온 251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모트는 코넬대학의 대표로 참석한 것이었다. 집회 마지막 날 로버트 윌더가 선교사로 헌신하자는 제안을 했다. 모트를 비롯한 100명의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느 곳이든 선교사로 가겠다(I purpose, God willing, to become a foreign missionary)”라는 ‘프린스턴 서약’(Princeton Pledge)에 서명했다. 이 서약은 후에 학생지원자 운동의 기초가 됐다.

3. 존 모트의 사역

존 모트는 대학시절부터 조직력과 리더십이 탁월했다. 그는 2년 간 코넬대학에서 ‘기독교청년회’(YMCA) 학생부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면서 회원 수를 3배나 증가 시켰다. 그는 세

계복음화를 실현하기위해 교파간의 협력을 중요하게 보았다. 학생지원자운동은 다양한 교파와 신앙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이상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1888년에 학생지원 선교운동(SVM)의 의장이 되어 대학생 선교동원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이 운동은 1890년부터 1939년까지 약 2만5000명의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헌신케 하였다.

또한 모트는 YMCA에서 국제위원회 학생부와 해외책임자로서(1888-1915) 활동했고 그 후 세계연맹의 회장(1926-1937)이 되어 전 세계를 누비며 젊은이들에게 선교의 불을 지폈다. 1910년에는 범세계적인 에딘버러 선교대회(Edinburgh Conference)를 주최하여 위원회의 회장으로 봉사하였다. 본 대회 때 그는 세계교회의 회원들에게 공식 메시지를 전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계복음화를 향한 그의 강한 열정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큰 신뢰와 전능하신 힘에 대한 응답으로 더할 나위 없이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부탁은 우리 선교사들이나 선교단체나 또는 이 대회의 우리 회원들에게만 위임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 기독교인 가정, 나아가서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의무로 지어진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소망과 사랑의 기초적인 덕목들입니다.”

4. 존 모트에 대한 역사적 평가

인간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누구나 평가를 받기 마련이다.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어떠할까? 그는 세계선교의 비전 가운데 주의 일꾼들을 일으킨 복음전도자이며 탁월한 선교 동원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존 모트는 평신도 선교지도자로서 평생을 쉬지 않고 세계선교를 위해 힘썼다. 그는 주님을 위해 세상 부귀영화의 길을 포

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셨다.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전 세계 교회지도자들, 정부 관료들이 그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다. 그는 1946년에 국제선교운동에 쌓은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존 모트는 1955년 1월 31일 향년 90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는 생전에 죽음에 대해 “나에게 죽음이란 차를 바꿔 타는 정거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록 선교현장에서 사역을 하지 않은 평신도였지만 복음전도자와 선교동원가로서 큰 족적(足跡)을 남겼다. 후자는 그는 가리켜 영적 거인이요, 현대판 사도 바울이라 칭하기도 한다.

맺음 말

“이 세대 안에 세계복음화를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존 모트는 SVM의 이 슬로건에 스스로 매인바 되어 지구촌 구석구석을 돌았다. 그는 특별히 척박한 학원 선교에 집중했다. 당시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것 같은 그 비전과 열정은 불행히도 그와 함께 묻히고 말았다. SVM의 믿음대로라면 마땅히 실현되었어야 할 세계 복음화가 더 요원하게 느껴짐은 무슨 문제인가? 제 3세계의 급상승하는 인구 증가율과 도전하는 악의 세력 때문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킹덤을 생각하며 일사각오(一死覺悟)의 정신으로 선교에 헌신한 일꾼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지원자운동으로부터 133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듣는가? 우리 세대 안에 세계복음화를 이루겠다는 열망과 도전이 있는가? 존 모트(John R. Mott)가 못다 한 이 선교비전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응축되어있는 교회 안의 힘을 열망으로 표출해야 한다. 마치 들뜬처럼.

jrson007@hanmail.net

존 모트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동원가로서 선교일꾼을 일으키는데 탁월한 족적을 남겼다. 선교란 소명 받은 곳에 일사각오(一死覺悟)의 정신으로 나가는 것이다.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⑦ 안디옥교회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바울이 섬겼고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안디옥교회는 기독교 교회사에서 특별한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교회를 함께 목회했습니다. 이 안디옥교회가 역사상 공식적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첫 교회입니다. 안디옥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를 이어 당시 세 번째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은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동방의 중심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안타키아(Antakya)로 부르는 안디옥(Antioch)은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시리아 지역 수도였고 로마 군사기지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로마황실의 관심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은 내륙 교통망으로 로마제국의 모든 중요한 지역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실루기아(Selucia) 항구에서 48km 떨어져서 해양교통도 좋았습니다. 헬라와 로마 문화가 꽃

피고 빈번한 무역이 왕래하는 국제도시 안디옥은 복음을 수 출하기에 최적화된 도시였습니다. 선교적 인프라가 잘 구축된 안디옥교회에서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름은 주전 300년경 시리아를 통치하던 셀류코스 1세가 건설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안

도시들처럼 대부분의 시민들이 둘 이상의 노예를 두고 살았습니다. 안디옥은 외부와 연결된 도로망뿐만 아니라 도시 내부 도로망도 상당 수준 발달했으며 특히 오르테스 강을 이용한 수로로 교통과 상수도 시설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안디옥의 생활은 윤택하였습니다. 특히 오르테스 강을 따라

안디옥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던 다인종 도시였습니다. 혹은 동방의 모든 인종들이 섞여 살았던 도시였다고 말합니다. 안디옥에는 정복국 로마의 시민들, 문화를 가진 그리스인들, 당시 길리기아에서 살았던 길리기아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등지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민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스와 사바시우스, 다소의 산단과 헤라클라스 그리고 페니키아와 시리아의 몰렉 등이었습니다. 이런 우상들이 우글거렸던 안디옥이 역사적으로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이었고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가 번성할 수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동양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 안디옥은 교회사에서 찬란하게 빛납니다.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시작했고, 이방인들을 수용하여 지도자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발굴된 유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전쟁과 이슬람의 지배로 기독교 관련 유적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교회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안디옥교회는 인권 의식이나 민주주의가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시대를 앞선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에 흥년이 왔을 때 바나바와 바울 편에 부조금을 보냅니다. 모든 성도(제자)들이 각각 능력대로(그 힘대로) 부조금을 모아서 두 사람 편에 보내어 예루살렘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힘겨운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안디옥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는 부조금입니다. 나눔과 섬김에서 도 모범을 보인 안디옥교회 모습입니다.

안디옥교회는 세련되고 성숙한 교회입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얻었던 성숙한 교회입니다. 기도와 금식의 과정을 통해 첫 선교사의 파송 과정도 성숙하고 세련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성숙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성숙하고 세련된 안디옥교회였습니다. 안디옥교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바울과 바나바로 헌신한 교회입니다.

복음 수출하기에 최적화된 국제도시 안디옥에 세운 성숙한 교회 바울과 바나바 첫 선교사로 파송,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이름언어

안디옥이라 불렀습니다. 당시 셀류코스 1세가 아버지를 기념하여 세운 안디옥이라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켈터키주 루이빌에 남침례교신학교(The Southern Baptist Seminary) 신약 교수인 폴힐(Dr. Polhill) 박사는 16개의 안디옥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안디옥은 다른 고대

16km 정도에 걸쳐서 늘어서 있는 안디옥의 호화주택 유적은 시민들의 부요한 생활을 보여줍니다. 안디옥은 고대 도시들 중에 가장 발달된 수자원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르테스 강물을 활용한 한 도시의 상수도 시설은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안디옥의 역사를 살펴보면 안

안디옥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았던 국제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주요 행정 도시로서 공공질서를 누릴 수 있었고 적당한 문화와 경제력 번영도 누렸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살았던 안디옥은 종교적으로도 다양했습니다. 예컨대 이집트의 이시스와 오시리스, 아시아의 디오니시우스

다. 사도행전 13장 서두에 등장하는 안디옥교회 리더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다문화 교회요, 국제교회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지도자들이 안디옥교회에서 지도자로 활동합니다. 21세기 국제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도자들이 더불어 일하는 교회를 보기가 쉽지

chap1207@hot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시작(창1:1-31)찬67장

하나님께서 만물의 기원(Origin)부터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하늘과 땅, 빛과 어둠(시간, 공간, 물질)을, 둘째 날은 궁창을,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와 식물들, 넷째 날은 광명체(해, 달, 별)를 만드시고 계절과 시간을 나누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생물들과 해양 생물들을, 여섯째 날에는 육지 생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어떠하심(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반사해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화 창조의 완성(창2:1-25)찬220장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모든 창조 사역을 완료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흠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살아있는 영'이 된 아담은 그 순간부터 생명을 누리며 '에덴(기쁨)'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아담을 위하여 아담의 갈비뼈로 여

자를 지으셨습니다. 아담은 그 여인을 보고 '이 사람의 뼈는 내 뼈고, 이 사람의 살은 내 살이다!', 즉 '그대가 곧 나며, 내가 곧 그대입니다'라는 사랑 고백을 합니다. 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랑하며 삽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너는 나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수 선악과(창2:9-17)찬24장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두 가지의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는 선악과나무,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선악과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주인처럼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과 인격적인 약속을 하시며, '선악과'라는 '제한'을 통해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선악과 앞에서 있습니다. 물질, 권세, 학위, 자녀 등을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합시다.

목 죄의 증상(창3:1-24)찬268장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의 판단 기준이 자신들이 되고 죽지 않고 싶은 욕망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과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하나님

과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어야 할'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금 두 예배자(창4:1-15)찬359장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며 죄인인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가죽옷을 만드는 그 과정을 똑같이 재연하며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제사에서 실패하였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일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이름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 예배자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삶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토 늦 땅으로 이주한 가인(창4:16-24)찬140장

아벨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늦 땅으로 이주합니다. 거기서 자신의 왕국을 세웁니다. 성을 쌓고 마을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자신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화려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가축을 치고 각종 악기

를 만들고 발전된 기술로 각종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다. 특히 라멕은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그의 아내들에게 자랑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들은 기술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 (9)

II. 초기 기독교 예배를 통해서 본 예배와 음악

2. 오늘날 교회 예배에 주는 도전들

2) 순수한 열정의 찬양이 있는 예배공동체
"기독교 교회는 노래 안에서 태어났다(Christian Church was Born in Song)" 바울 신학의 권위자 랄프 마틴(Ralph P. Martin 1925-2013) 교수는 그의 책 'Worship In the Early Church'에서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것을 그는 세 가지로 입증하는데 그 첫 번째는 기독교 복음의 내용들이 찬양으로 나타나 불려지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1세기 이전의 상황을 보면 초기 기독교 교회가 유대 전통을 이어 찬양하는 공동체였음을 예견케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의 내용들에서 송가들을 가지고 예배하는(Canticles of Worship) 증거들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한다.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그리고 예배소서 1:3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내용을 본다. 한편 빌립보서 2:9-11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 최상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볼 수 있다. 또한 로마서 11:33-35이나 딤후전 1:17 등의 구절들은 구약의 유대적 전통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으로 특히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 중 하나인 디모데전서의 내용 중 하나님을 "만세의 왕"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유대적 찬기도들과 회당의 찬양에서 사용된 구절들이 틀림없다고 랄프 마틴 교수는 언급한다.

이 외에 신약의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는 찬양에 대한 언급은 그리스도 복음이 중심이 되어 찬양을 드리면서 그 내용 안에 나타나는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현대교회예배찬양자의문제: ①삼위하나님 중심에 소홀

②기교 기술에 치중 ③수동적

안에서 자라나게 된 것이기에 당연히 유대교 전통의 찬양에서 계승된 것으로 특히 성전과 회당의 전통을 많이 답습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유대역사에서 포로이전시대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찬양형태인 응답송(Responsorial)이다(출15:21, 삼상18:7, 시4,5,6,8,9, 11,12,13,14,19,20,21, 22,31, 39,40, 41,42,75,76,77,80,81,84,85 등 다수). 선창자가 먼저 부르면 회중이 응답하며 함께 찬양하는 것으로 이후 서방교회(Western Church)나 동방교회(Eastern Church)에서 칸토르(Cantor)들의 역할이 그것이다. 포로시대 이후에는 두 그룹이 서로 번갈아 교차하며 부르는 교창송(Antiphonal) 형태(스3:11, 느112:24,31)가 많이 발전하였다.

초기 기독교 교회는 찬양의 방법뿐 아니라 찬양의 내용에도 구약의 전통을 이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가사를 만들었다. 사도행전의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기도서는 다윗의 시편을 근거로 한 것을 볼 수 있다(행4:24-30). 또한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4:8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내용은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리는 시편 내용들의 가장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 이사야 선지자도 그가 천상에서 스랍의 천사를 삼위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선지자로 서원하게 된 모습을 본다(사6:3).

사도 바울이 쓴 글에서도 성부 성자를 높이며 찬양하는 부분을 자주 볼 수 있다. 예배소서 1:2에 하나님 우리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드러내며 송축하는 찬양들이 틀림없다. 디모데전서 3:16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인격에 대한 진리를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찬양하는 내용에서도,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Christology)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말하는 빌립보서 2:6-11에서도, 또 하나의 뛰어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골로새서 1:15-20에서도 공히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으로 결론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이 초기 기독교 교회는 구약의 전통을 이어 받아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또한 예배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었고 예배의 흐름 속에 찬양이 필수가 되어 성부하나님 성자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송축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던 것이고 이런 예배에 회중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던 예배공동체였다.

이런 관습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초기 기독교 교인들이 오늘의 현대교회예배를 보고 오늘의 예배자들을 향해 조언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는 오늘날 교회는 삼위하나님이 중심된 찬양을 드리는 것에 너무 소홀하고 있지 않는가? 두 번째는 찬양의 기교와 기술적인 면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는가? 그리고 예배자들이 찬양에 임하는 자세가 능동적이지 못하고 구경꾼들처럼 다소 수동적이지 않는가?

iyoo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판매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장애인 선교 “복음과 사랑의 실천” (II)

5. 사역자는 긍휼의 사람이어야 한다

긍휼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무엇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 함께 고난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긍휼이 여기는 자는 힘이 있는 위치이고 긍휼을 받는 자는 힘이 없는 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힘이 없는 자는 긍휼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아니다. 긍휼의 참 뜻을 이해한다면 약한 자도 얼마든지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물론 장애인도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다. 나우웬은 이렇게 말한다.



“긍휼을 뜻하는 영어 단어 compassion은 라틴어 pati와 cum에서 파생된 말이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함께 고통 받다’라는 의미가 된다. 긍휼은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해지고 상처입기 쉬운 자들과 함께 상처입기 쉬운 자가 되며 힘없는 자들과 함께 힘없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 상대방과 함께 고통 받는다는 의미로 긍휼을 이해하게 되면 때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거부감 내지는 심하면 저항감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

보통 힘 있는 신이 사람의 고통을 제거해준다고 생각한다. 다른 종교의 모든 신들은 다 그런 종류의 신들이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셨다. 고난을 함께 당하는 신은 인간 머리에서 나올 수 없다. 세상은 타락이후 지배와 경쟁의 구조로 빠져 들어갔다. 그래서 힘이 최고라는 미신을 믿게 되었다. 긍휼은 단지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동정 정도로 생각되고 긍휼을 받는 사람은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다. 사람들은 세상을 적자생존의 전쟁터로 알고 있다.



나우웬은 생의 마지막 10년을 장애인과 함께 살며 청의론적 복음뿐 아니라 장애인의 육신적 고통, 사회적 차별, 가난위해 힘써 복음에 합당하게 살다...

그 구조에서는 긍휼조차도 경쟁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정치인이 선거철에 빈민가를 찾아 봉사 활동을 하고, 기업이 홍보를 위해 기금을 내놓고 이런 활동은 긍휼을 자신의 이익으로 생각한다 고 해를 받는다. 그 긍휼은 강자가 약자에게 주는 부스러기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보여주신 긍휼은 그런 긍휼이 아니다.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함으로 자신도 고난을 겪으면서 나누어주셨다. 장애인 사역자는 장애인과 함께 겸손하게 생활하며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일해야 한다.

제 7절 3장 결론

헨리 나우웬이 일평생 찾았고 마침내 데이브레이크 장애인 공동체에서 장애인들에게서 확인했던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의 진리는 루터가 젊은 시절부터 고민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식, 불안(anxiety)과 비슷하다. 루터가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은 평안을 발견했다.

헨리 나우웬도 일평생 조건 없는 사랑을 찾아 헤맸는데 그것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3:17) 진리와 통하는 부분이 있다.

헨리 나우웬은 이렇게 청의론적인 복음으로 자신의 공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내적 평화를 찾았을 뿐 아니라 이웃사랑에도 적극적 관심을 가져 루터 목사의 인권운동, 페루 빈민가 활동, 생의 마지막은 장애인 공동체에서 사랑을 실천했다.

결론적으로 생의 마지막 10년을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청의론적인 복음뿐 아니라 장애인의 육신적 고통, 사회적 차별, 가난의 문제를 위해 힘써왔다고 생각할 때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왔다고 볼 수 있다. miju92@gmail.com

미주중부노회 신설조직 실무위원 박광재 목사가 총신출신 동문 선후배 목사들에게 드리는 글

[편집자주] 예정합동 미주중부노회 신설조직 실무위원 박광재 목사가 총신출신 동문 선후배 목사들에게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는 취지의 글을 투고했다. 박광재 목사는 제105회 총회 소강석 총회장과 총회임원회 미주중부노회 신설 조직을 위한 소위원회(위원장: 배광식 목사부총회장, 서기: 김한성 목사)로부터 제58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말미에 미주중부노회 신설을 위한 실무위원으로 위촉받았다. 본지는 글을 정리해 게재한다.



박광재 목사

우리가 새롭게 신설 조직할 미주중부노회는 소위 말하는 교회와 노회와 총회의 정치꾼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한 뜻과 성향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저희 미주중부노회에 가입할 생각을 단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미주중부노회를 신설조직하려는 세가지 중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인간들이 주와 왕 노릇하는 노회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주와 왕 노릇하시며 통치하시는 거룩한 노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세속적, 인본주의, 탐문주의, 신본주의, 신본주의, 신정정치를 하는 노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16년 전 저와 뜻을 같이한 선후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신설 조직한 남평양노회의 경우는 지난간 16년 동안 노회 내에서 아무런 잡음도 발생하지 않았고 총회 산하의 162개 노회를 가운데 가장 은혜스럽고도 행복한 모범적인 노회로 칭찬받으며 부흥과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최종선택과 최후결정의 절대주권을 성삼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고 거룩한 성경의 제비뽑기를 노회의 규칙과 노회임원들과 총회총대들을 선출하는 선거규정으로 제정하여 실시한 까닭입니다.

성경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잠16:33)하셨고 “제비 뽑는 것은 다름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잠18:18)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노회의 규칙과 노회임원들과 총회총대들 선출하는 선거규정으로 채택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되어 노회원 서로가 노회 임원이나 총회총대의 자리를 양보하는 까닭에 노회선관위에서는 적임자를 추대하므로 일체의 세속적인 봉당정치가 사라지고, 감투싸움과 자라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목적은 그러므로 현재 제가 소속하고 있는 남평양노회처럼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총신출신 선후배 동문 목사님들께서도 세속화된 노회와 총회의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교회와

노회와 총회의 아름다운 풍토를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

행복한 교회와 행복한 노회와 행복한 총회는 인간들의 수단과 방법만으로 즉, 권모술수의 인본주의 정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주와 왕이 되셔서 주권과 왕권을 행사하시며 통치하시는 거룩한 성경의 신본주의, 신주주의, 신정정치 선거제도인 제비뽑기 선거제도도 개정하여 적용할 때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신구약 성경역사 1500년 동안에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성군 다윗과 지혜의 왕 솔로몬과 초대교회의 주님의 11 사도들과 120문도들의 전승과 계승을 통하여 그리고 새천년을 맞이하여 한국기독교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된 우리 예정합동 총회의 지난간 12년 동안의 적용과 총회 산하의 여러 노회들과 특별히 남평양노회의 지난간 16년 동안의 적용을 통하여 검증되고 입증되고 확증된 바입니다.

셋째 목적은 성삼위 하나님과 총회로부터 미주중부노회를 신설 조직 하라고 하는 사명을 위촉받은 목사로서 남은 생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총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마지막 헌신과 봉사의 기회로 여기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삶과 사역을 감당하도록 노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삼위 하나님과 한국총회와 3만여 총신 동문들과 미주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총신출신 선후배 동문 목사님들께 진실하고도 성실하게 미주중부노회를 신설 조직하는 사명과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해 나아가시는 미주중부노회를 신설조직하는 성 사업을 가로막고 방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미주중부노회와 미주서부노회를 각각 세우 주셨고 그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기 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신설 조직할 우리 미주중부노회는 결코 두 형제 노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들로 인하여 다투지도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므로 두 형제 노회에 평화의 언약의 연애와 예를 갖추어 협력해 주심으로 미주중부노회가 신설 조직될 수 있도록 배려와 협력을 요청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성취하시기를 위하여 상호협력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전4:9-12). 그러므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3개 노회가 상호협력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뜻과 총회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미주지역에 존재하는 3형제 노회들로 존속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주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총신출신 선후배 동문 목사님들께 정중한 요청과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신선후배 동문들을 위하여 미주지역에 또 하나의 새로운 노회를 조직한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총회적으로는 경사스러운 일이며 미주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총신출신동문 목사님들에게는 본국총회와의 선교적인 차원에서 유대를 강화하고 세계선교의 지경을 더욱 넓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총신출신 동문 선후배 목사님들께서는 기도해 주시고 미주중부노회 라고 하는 육동자와 세계선교적 동반자가 순산할 수 있도록 히브리산과들처럼 선한 역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사스러운 성 사업을 시기하고 훼방하는 정치꾼들이 있사옵기에 부탁드리는 말씀은 저들의 방해막아주시는 방패역할과 UN군과 같은 지원군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산과 역할과 지원군의 역할이란?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로서 미주중부노회를 신설 조직하는 선한 일을 돕기 위한 긍휼과 선한 마음으로 미주중부노회가 제105회 총회임원회의 실사를 거치고 제106회 총회현장에서 인준을 받기까지 동참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16면으로 계속)

미주중부노회 신설조직을 위한안내 공고문

미주중부노회 신설조직을 위하여 총신출신 동문 목사님들께서는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주후 2021년07월30일 (금) 제105회 총회임원회 미주중부노회 신설소위원회의 실사가 완료됩니다.
2. 주후 2021년08월02일 (월) 예정합동총회 미중부노회 신설 조직을 위한 1차 예비모임이 있습니다.
3. 주후 2021년09월13일 (월) - 15일(수) 울산우정교회에서 개최하는 제106회 총회에 참석합니다.
4. 주후 2021년10월22일 (월) - 24일(수) 미주중부노회 신설조직을 위한 창립정기노회를 개최합니다.
5. 미주중부노회창립을 위한 가을 정기노회 일시 및 장소는 결정되는대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참조사항〉

1. 제1차 예비모임 일시 : 주후 2021년08월02일(월), 장소 : Urban Pilgrims Church 2901 W. Pico Blvd. LA CA 90006. 교회 연락처 213-505-4275 (김여영 간사)
2. 제1차 예비모임에서 제106회 총회에 파송할 미주중부노회 대표자 6인을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방법인 거룩한 성경의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선출합니다.
3. 창립을 위한 가을 정기노회에서 목사노회장, 장로부노회장, 서기 등 중요 노회의 정/부임원들과 총대들을 거룩한 성경의 제비뽑기로 선출합니다.
4. 목사노회장을 비롯한 장로부노회장과 서기는 당연적 자중총대로 파송하고 조직교회 수에 따른 총대배분에 따라서 그외의 총대목사와 장로 2-3인을 추가로 선출합니다.
5. 참여하실 노회원들께서는 사전에 연락 주시기를바랍니다. 하오나 형편상 참여하시기가 어려우신 회원들께서는 모든 회의결의에 동의 하신다고 하는 위임장 제출을 요합니다.
6. 미주중부노회 임원 및 총대 선출 방법은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방법인 거룩한 성경의 제비뽑기로 선출합니다.
7. 미주중부노회 신설조직을 위한 가을 정기노회에서 회원들의 합의에 따라서 노회규칙과 선거규정을 거룩한 성경의 제비 뽑기로 명시한 노회규칙과 선거규정을 채택합니다.
8. 구약 성경 역대상 24장, 25장, 26장에서 성군다윗이 제사장들의 사역분담, 성기대원선발, 문지기선발을 위하여 각각 이름을 기록하여 차등 없이 제비를 뽑아 선출하였습니다.
9. 신약 성경 사도행전1장에서 11사도들은 그들가운데 사도가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두 사람 요셉과 맛디아를 천거하고 제비 뽑아서 맛디아를 사도로 보냈었습니다.
10. 이와같은 신구약 성경의 모범사례를 적용하여 당회를 조직한 조직교회 당회장을 가임순서 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분들을 미주중부노회의 임원 및 총회 총대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하오니 이점을 고려하시고 참조하시어 하루라도 신속하게 가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살롬!

주후2021년07년07일(목) 미주중부노회 신설조직 실무위원 박광재 목사 배상

인/터/뷰

CKSBCA 한인총회장 김경도 목사

‘교회를 살리는 총회, 교회가 살리는 총회’로



CKSBCA 한인총회장 김경도 목사

지난 6월 15일부터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남침례교(SBC) 총회에서 한인총회장(CKSBCA)에 플라워마운드 교회 담임 김경도 목사가 선출됐다. 김경도 목사는 “총회 사무실이 제가 섬기는 교회 가까이 있어서 크고 작은 심부름을 많이 하게 됐다”라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마다하지 않고 섬기다 보니 총회장의 자리까지 이끌어주셨다. 부족한 중이지만 건강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가 될 것이다. 둘째, 교회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셋째, 전략적인 교회 개척과 개교회의 선교 동원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는 총회가 될 것이다. 넷째, 총회 각 기관과 함께의 가치를 공유하고 중보기도, 교회 갱신, 교회 개척, 목회자 복지, 구제, 협동선교헌금 등 자발적인 헌신이 적극적으로 일어나 함께 돌아보는 총회로 세워갈 것이다.

제로 회복의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기간 중 최대 이벤트로 앞으로 총회(SBC)를 이끌어갈 총회장 선출시간이 있다. 총회에 많은 대의원들이 직접 참석해 총회장을 선출하는데 참여하기도 했다. 우리 총회는 SBC와 함께 미국에 계속 늘어나는 다양한 민족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개척해 가는 일과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앞장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또 많은 한인 목회자들이 SBC 교단을 통해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역하고 있으며, 한인 목회자들이 SBC 각 기관에 들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총장,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워싱턴 성광교회 임용우 목사 등 여러 강사님이 초빙돼 시간마다 엄청난 도전과 헌신으로 이끌어주셨다. 그 외에도 여러 주제의 선택강의가 준비돼 참석자들은 관심 있는 주제의 세미나를 들을 수 있었다. 44년 목회를 통해 깨달은 목회 핵심(김경찬 목사), 목회자가 꼭 알아야 할 기본 IT 기술(곽정민 목사), 반드시 부흥하는 주일학교 사역(송관섭 목사),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대처법(김재이 목사), 하나님 마음과 IMB 선

이러한 점을 부러워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총회가 주님이 주신 대서명에 집중해왔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비본질적인 것은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여유와 성숙함이 있기

매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목회코칭을 통해 서로 섬겨주는 관계다. 후배 목사님들께 조언해주고 싶은 것은 꼭 목회의 코치 혹은 멘토를 찾으셔서 함께 목회의 길을 걸어갈 것을 권한다. 그래야 목회가 외롭지 않다. 제 목회철학은 ‘다함께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마9:35)’가 되기 위해 성도들을 ‘구원받은 백성’, ‘배우는 제자’, ‘섬기는 사역자’, 그리고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가는 것이다.

-임기동안 총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교회를 살리는 총회, 교회가 살리는 총회’로 세워가는 것이 나 자신의 비전이다. 임기 동안에 앞으로 5년 동안 비전을 이루어갈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총회 각 기관들이 계획하도록 이끌 생각이다.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위기에 놓여 있다. 매년 6,000-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저희 SBC도 10-15%의 교회가 죽을 위기에 있으며, 매년 9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특히 한인교회는 80-90%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들이라 더욱 심각한 것이다. 그래서 ‘함께의 가치를 추구’하고 4가지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 총회를 이끌어 갈 것이다.

첫째,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함께 기도하는 총회

-미국 최대 교단인 SBC 내에서 CKSBCA도 40년 역사를 가졌다. 교단 내에서 한인교회 총회의 역할은 어떠한가?

선배 목사님들의 많은 희생과 수고로 40년 동안 우리 총회가 건강하고 선교적인 총회로 세워져왔다. 특히 매년 총회로 모일 때마다 어린자녀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침례교인들의 축제로 진행돼왔다. 이번에도 팬데믹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약 600여명이 참석해 ‘대서명을 회복하자’는 주

어가 동역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한인 목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총회 기간 동안 가졌던 특별 이벤트 세미나는?

이번 총회 주제가 ‘대서명을 회복하자!’였다. 주제에 맞게 세미나도 준비했다. 세미나는 ‘고구마 전도왕’으로 알려진 소중환 침례교회 김기동 목사, 북미선교부(North American Mission Board, NAMB)의 조니 힌트 부총재, 제이슨 알렌

교(배병균 선교사, 설훈 선교사), 난민선교 이렇게 시작하라(김재현 목사, 김도리 사모), 여선교회 사역과 WMU(이조이 자매) 등의 강의가 있었다.

-총회와 총회원들에 대한 바램은?

우리 총회는 지금까지 건강한 총회, 은혜로운 총회로 잘 지켜왔다. 연차총회로 모일 때마다 자녀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쉽고 회복을 얻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많은 분들이

때문이다. 계속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총회가 됐으면 한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증거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후배나 동역자들에게 소개할 목회철학은?

3년 전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총회에 ‘일대일 목회코칭 네트워크’를 점목시키고 지금 뿌리를 잘 내려가고 있다. 코치와 피코치의 일대일 관계를

-총회장으로 선출됐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오래 동안 교단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가족들이 담담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며 “2년 전에 제1부총회장으로 헌신할 때 이미 기도 중에 ‘나의 목회 울타리를 넘어서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받아서 가족들도 헌신했다. 그래서 총회가 또 하나의 저의 목양지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중보기도 네트워크 구축, 건강한 교회 위한 교회활성화 전략 전략적 교회개척과 개 교회 선교동원, 함께 돌아보는 총회로

미주중부노회 신설조직 ...

(15면에서 계속)

현재 우리교단총회의 경우 타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총회의 허락을 받고 총회산하의 지교회의 목회나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고 총회는 그 사실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주동부노회나 미주서부노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전

수조사를 할 것이면 대다수의 노회원들의 경우 미국에 조직된 총회와 한국의 총회에 교적이 2중으로 소속하고 있으나 문제를 삼지 않고 그대로 묵인 내지는 허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선교를 위한 시대적인 요청이며 당연한 행정적인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미주중부노회가 제106회 총회로부터 정식으로 인준을 받고 설립된 이후에는 예정합동총회와

미주중부노회의 회원으로 교적을 두고 계속적으로 사역해도 되시고 아니면 임무를 완수한 지원군들이 임무를 수행한 후에 자국 또는 자대로 복귀하듯이 본래 소속한 미주총회나 노회로 이명 내지는 이거하여 원대 복귀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와 같은 행정적인 협력과 동참은 그 어느 총회나 노회나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악행이 아니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회를 세우려는 목적과 총신출신동

문 선후배 목사님들을 돕고자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인 까닭에 힘과 능력이 있는 총신동문 선후배 목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애굽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기억하여 나그네를 영접하라"고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전에 미주지역 대화와 노회 시절 교단정치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때를 추억하시면서 현재 노회 가입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총신동문 선후배 목

사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선을 행하는 마음으로 선한 손길을 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미주서부노회와 미주동부노회원들에게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공고문 말미에 미처 정제하지 못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되지 못할 지언정 원수로 돌변하여 형제에게 위해를 가하지 말아 달라고 과격하 표현으로 인하여 불평을 드린 점에 대하여 우리 구주 예수그리스도의 사랑

으로 허물을 덮어주시고 관용과 심과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살롬!

▲가입문의: 미주중부노회 사이트(www.mijoojoongbu.org)에서 가입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총회 행정담당 조미예(lim4893@hanmail.net) 차장 혹은 박광재(holylot@naver.com) 목사에게 (7월 20-30일) 보내면 된다. 박광재 목사 전화는 한국 (010-7272-0691), 김여영 간사, 미국전화(213-505-4275).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Midwest University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 교수 1. 경영, 마케팅,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 신학, 선교, 목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국방, 항공, 상담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
* Full time or Part time - Online Teaching,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수 있는 분
- 사역 개발 분야 - 산학협력, 인력개발, IT, 마케팅, 항공, 어카운팅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자
- 자격 1. 미국에서 High School 과 College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2.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3. 영주권 스폰 가능
4. 관련분야 경력자 선호
- 제출서류 : 이력서,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
- 제출처 : jp@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c@midwest.edu